

이 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 수련활동의 기본철학과 방법론

◎ 수련활동의 기본철학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을 문제의 시각에서 그 증상을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소위 원인(cause) → 결과(effect)의 환원주의적 접근으로 일관해 왔다. 물론 원인 → 결과의 정형화된 시각으로 인간현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시각이 요청되는 청소년문제에 원인 → 결과의 패러다임을 적용할 경우 그 패러다임에 내재된 오류가 명백히 드러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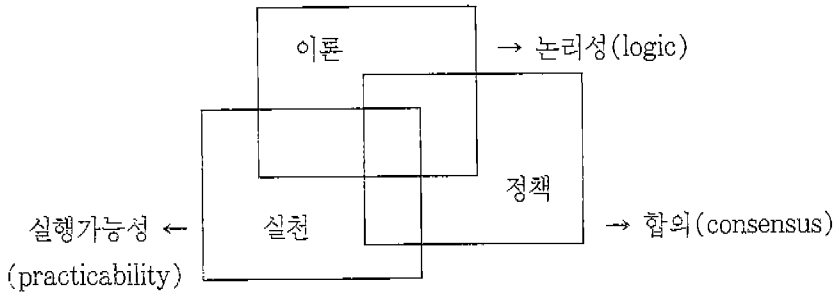
검은색 안경을 쓰면 온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과 같이 청소년에 대한 이와 같은 정형화된 시각은 청소년의 삶을 왜곡시킨다. 이 패러다임으로 현상을 들여다보면, 현상을 파악하려는 주체(subject)와 파악되는 대상인 객체(object)간의 엄격한 상호분리를 전제로 인식의 과정이 시작된다. 예컨대, 청소년문제를 인식할 경우에 어른이 주체가 되고 아이들은 탐구의 객체로 분리되어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에게서 찾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수련활동은 청소년문제가 본질적으로 원인 → 결과의 정형화된 시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기본가정을 갖는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지향적이어서 이론적 논의를 중시하는 원인 → 결과의 접근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말 청소년문제는 학자(이론가)들의 전문적 논의로 해결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이해 당사자(청소년, 어른, 사회)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조정이 요구되는 정책지향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장면에서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천지향의 문제이다.

실천적 맥락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을 전제하는 수련활동의 기본철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지향이다.

흔히 인간사는 [그림 1]과 같이 이론, 실천, 정책 등 세가지 문제영역으로 구



[그림 1] 세 영역과 해결의 준거

분된다. 대체로 이론의 영역은 해결의 관건이 논리적 타당성에, 실천의 영역은 실행가능성에 그리고 정책영역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에 있다.

청소년문제가 이론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적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문제가 원인 → 결과의 단순한 인과관계로는 분석해 낼 수 없는 복잡한 인간행위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청소년문제의 대부분이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들의 합의도출과 즉각적인 실천이 해결의 관건이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 광범위한 합의와 즉각적인 실천으로 해결을 모색치 않고 선-이론적 논의, 후-실천의 잘못을 범해왔다. 실행 가능성과 합의가 청소년 문제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에 실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학자나 전문가의 역할보다 강조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청소년문제는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이해해야 한다.

실천의 사태는 이론적인 삶의 세계와는 달리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독특성과 가치의 갈등을 특징으로 하는 지극히 상황지향적인 장면이다. 어떤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서 즉시 대처해야 하는 일상의 삶의 사태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데 유일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 마치 테니스 선수가 자기 코트에 공이 넘어왔을 때 공식에 대입하여 공을 쳐 넘길 수 없는 것 처럼, 우선 넘겨 보내고 나중에 따져 보는 것과 같은 상황지향적인 것이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유일한 정답(true)을 찾는 이론

의 문제가 아니라 사려깊은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실천지향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문제는 사실(facts)을 만들어 내는 예술적 행위의 삶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 같다.

의미는 상황지향적이며, 상황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로 청소년문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편의 드라마 처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영화를 감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영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치 않은가? 이런 시각으로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 볼 때 비로소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문제의 해결은 현장 실천가들의 몫이다.

청소년문제의 본질이 실천과 정책지향이라는 점은 바로 청소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현장 실천가들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상황에 부딪혔을 때, 전문가나 학자들로부터 정답을 받아 적용할 여유가 없다. 신중한 판단과 사려깊은 행동만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실천의 상황에서 현장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최첨단 기기를 갖춘 최신형 비행기의 추락사건, 즉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보다 경제적인 운항을 추구하려는 기장의 판단에 의해 시설이 낙후한 비행장에 몇번의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한 사건을 상정해 생각해보자.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조종사의 기술이나 조종팀의 지휘 그리고 컴퓨터화된 첨단 기기들의 성능보다도 조종사가 상황에 대처하는 판단능력이 항공기 안전에 훨씬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조종사의 행위는 매순간마다 그가 내리는 판단에 의해 좌우되며, 또 그의 판단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겪는 온갖 개인적·직업적 스트레스나 걱정거리 같은 것들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상정한 추락사고는 조종사가 직업적으로 받게 되는 압력이 적어도 간접적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제대로 기기도 갖춰지지 않은 비행장에 몇번의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사고가 일어날 징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착륙을 시도했다. 만일 그가 아무런 압력을 받고 있지 않았더라면 왜 그렇게 위험스런 착륙을 시도했겠는가? 아마 첫번째 착륙 시도에서 실패한 뒤 기상 등을 고려하여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어야 했을 것이다.

악천후에도 목적지에 착륙해야 한다는 압력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를 항공사가 요구하는 「경제운항」의 압력이라고 생각한다. 조종사는 이 경우에 「이윤을 위한 비행」과 「안전을 위한 비행」의 갈등적인 사태에 처하게 된다. 안전을 위해 조종사는 무리한 비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종사의 판단과 상반되는 것을 항공사가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최후의 상황판단과 행동의 수행은 실천의 사태에서 사려깊게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조종사의 몫인 것이다.

청소년문제에 대처하는 현장지도자들에게도 그 실천자로서의 역할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조종사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사려깊은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청소년 지도의 문제는 어떤 정형화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론가나 학자들이 실천의 현장지도자들에게 그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지도자들 또한 그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급한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실천의 최전선에 있는 청소년지도자를 제외하고서 실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은 수련활동의 의미와 그 적용에 관한 기본틀(안경)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 틀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실천의 장면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수련활동을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하고 수정하는 것은 당연히 현장지도자들의 일이 되어야만 한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하나의 정답을 발견해 내는 과학적인 활동이라기 보다는 그들에게 의미있는 삶을 안내해 주거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 수련활동의 방법론

흔히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데에는 실습, 답사, 견학이나 봉사활동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적 방법으로부터 강연이나 강좌 또는 토론과 같이 추상적이고 전달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지도기법이 사용된다.

수련활동지도를 위해서 전성연(1983)이 제시한 청소년 교육기법의 분류모형 [그림 2]은 지도하는 활동의 목적과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해 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전달－수용적 방법」은 흔히 지적인 학습을 요하는 경우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보다 많이 강조되는 「참여-탐구적 방법」은 상호작용의 역동적 맥락이 중시되며 「전달-수용적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정의적인 특징을 갖는 「수련-체득적 방법」은 일종의 생활훈련식 방법으로 집단활동을 통해서 인간관계 기술, 리더쉽과 멤버쉽, 가치와 창조의 순종, 자치능력의 함양 등 사회적 정의적 능력확대에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추상적 (지적) 구체적 (정의적)		
전달 — 수용적	참여 — 탐구적	수련 — 체득적
• 독서 • 강연 • 강의 • 시청각매체 이용	• 토의 · 대화 • 토론 · 세미나 • 회의 • 버즈분단세미나 • 역할연기 • 실험 · 조사 • 표현활동	• 실습 • 답사 · 견학 • 야영수련회 • 봉사활동 • 행군 · 행진 • 훈련

[그림 2] 청소년 교육기법의 분류모형

- 강의
- 강연식 공개토론
- 시청각
- 게시 및 전시
- 토론
- 분임토의
- 역할연기

- 현지답사
- 워크샾
- 구안법

위 10개 지도기법에 대해 각각의 특징과 준비 그리고 진행절차를 살펴보자.

○ 강의(Lecture)

○ 특징 :

강의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참여자들이 수동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약점이 있다. 강사는 참여자들이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결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말의 속도와 고저를 적절히 구사하여 참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강사는 강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참여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 사전준비 :

- 지도자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알맞는 강사를 선정한다.
- 강사에게 집단의 욕구와 흥미, 시간제한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진행절차 :

- 강사는 주제를 소개하면서 참여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 준비된 내용의 진행순서에 따라 정해진 시간동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 강의가 끝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 강사는 중요점을 강조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는다.

○ 강연식 공개토론(Seminar)

○ 특징 :

주제나 의제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를 가진 몇몇 연사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준비한 내용을 발표한다. 청중은 발표자들의 발표를 듣고 난 다음 질문을 하고, 발표자는 그것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시키며 토의에 청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발표자 중에서 좌장을 선정한다. 좌장은 주제를 제시하고 강사를 소개하며 논의를 명확히 해주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아 토론을 주재한다.

○ 사전준비 :

-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4~5명의 발표자를 선정한다.
- 발표자 중에서 사회자를 선출한다.

○ 진행절차 :

- 좌장은 참가자들에게 강연의 진행절차를 설명한다.
- 좌장은 논의 주제를 설명하고 발표자를 소개한다.
- 발표자들은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고 좌장은 발표자들의 내용이 적절히 연결되도록 사이사이 발언을 한다.
- 발표가 끝나면 좌장은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질의와 응답 이후에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좌장이 논의된 주제의 핵심과 결론을 요약한다.

○ 시청각(Audio-Visual)

○ 특징 :

시청각교육은 눈이나 귀를 통해 전달되는 시청각자료(VTR, 슬라이드, 차트, 모형 등)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언어라는 추상적 전달매체 이외에 구체적 경험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접함으로써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 자료는 정보전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해야 한다. 단순하게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한다고 관련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활동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사전준비 :

- 필요한 정보를 선정한다.
-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택한다.
 - 청 각 : 녹음테이프, 음반 등
 - 시 각 : 흑판, 차트, 도표, 실물 및 모형, 환등기 등
 - 시청각 : TV, VTR, 슬라이드 등

- 발표자를 미리 선정한다.
- 장비를 설치하고 자료를 미리 검토한다.

○ 진행절차 :

- 지도자는 주제와 발표자를 소개한다.
- 발표자는 시청각자료를 소개하고, 주의해서 볼 점을 지적한다.

- 발표가 끝나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 지도자는 논의 주제를 요약하고 모임을 마무리 짓는다.

○ 게시 및 전시(Demonstration)

○ 특징 :

게시 및 전시는 참여자들의 학습욕구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하며 요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시장소는 참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전시내용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이후 활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다.

○ 사전준비 :

- 전시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한다.
- 시각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실물이나 모형·그림 등의 자료를 구한다.

○ 진행절차 :

- 전시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전시(혹은 게시)한다.
- 참여자들에게 전시의 목적과 전시물을 볼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린 후 전시물을 관람하도록 한다.
- 관람후에는 참여자들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시나 게시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 토론(Debate)

○ 특징 :

토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이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가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타인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으면서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한다. 토론에서는 참여자가 모두 참여하여 여러가지 생각과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태도를 익히게 할 수 있지만,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한 사전경험과 지식이 있어야하고, 너무 인원이 많으면 원활하게 토론이 진행될 수 없고 주제에서 자주 이탈되는 단점이 있다.

○ 사전준비 :

- 주제를 참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자료를 제공한다.
- 주제 발표할 사람을 선정한다.

- 의장을 선출한다.

○ 진행절차 :

- 의장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토의목적과 진행방법 등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모임을 시작한다.
- 의제를 발표하게 한다.
- 주제에 관하여 참여자 전원이 토의에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 한사람이 너무 오래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방관자나 소의자가 없도록 참여자들을 통제한다.
- 토의가 의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 의견이나 제안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유도한다.
- 문제의 처리방법, 실천방법들이 제시되었다면 이후의 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의욕을 고취시킨다.
- 의장은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점을 강조하면서 모임을 종결한다.

○ 분임토의(Group Discussion)

○ 특징 :

소규모의 공개토론으로 모든 구성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 집단을 3~8명의 소집단을 편성하여 각 집단별로 과제를 맡겨 토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체집단에 발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분임토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를 완전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짧은시간 동안 모든 참여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여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임토의는 장난으로 흐르기 쉬우며 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넉넉한 토의장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 사전준비 :

- 다른 활동방법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도자는 논의될 주제를 명확히 하고 질문을 준비한다.

○ 진행절차 :

- 토의 목적과 분임토의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며, 분임토의가 시작되면 분임토의 집단으로 모이도록 한다.
- 각 분임집단은 사회자와 서기를 선출하도록 한다.
- 토론의 주제를 소개하고 참여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각 분임의 서기는 토론의 내용을 기록한다.
- 분임의 수가 적으면 모든 분임이 전체 앞에서 토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고, 그 수가 많으면 원하는 분임만 발표하도록 한다.
- 지도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모임을 마무리 짓는다.

○ 역할연기(Role Play)

○ 특징 :

역할연기 및 극화는 집단구성원들 자신이 설정된 구체적 상황이나 희곡대본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실연해 보는 것이다. 연기자는 자신이 맡은 배역이나 역할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함으로써 그 배역이나 역할의 의무나 느낌을 알 수 있게 된다. 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감정과 태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개방적이 되고 참여를 즐기게 된다. 극화는 기존의 희곡대본을 사용하거나 참여자들이 짠 촌극에 따라 배역을 맡고 연기를 하지만, 역할 연기는 특정 상황이 기술되면 그 상황에 맞게 연기자들이 연기를 해낸다.

○ 사전준비 :

- 문제에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설정하거나, 희곡 대본을 선정한다.
- (극화일 경우) 배역을 선정하고 대본을 나눠주어 대본에 따라 연습을 하도록 한다.

○ 진행절차 :

- 지도자는 상황과 인물에 대해 간단히 묘사한다.
- (역할연기일 경우)지도자는 설정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연기자를 선출한 다음 역할과 대사를 스스로 구성해 보도록 한다.
- 극을 상연한다.
- 참여자들은 극을 본 다음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지도자는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관찰·현지답사(Field Trip)

○ 특징 :

관찰과 현지답사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만 활동진행 절차는 유사하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므로 참여자들의 참여의욕을 높여주어야 성공적으로 활동을 이끌 수 있다. 관찰과 현지답사 전에 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방문 후에는 경험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 사전준비 :

-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 관찰대상 기관으로부터 방문 허가를 받는다.
- 관찰대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숙지한다.
- 관찰해야 할 점과 배경지식에 대해 알아둔다.

○ 진행절차 :

- 방문 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지도자는 관찰대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주의점 등을 참여자들에게 알린다.
- 관찰이나 현지답사를 실시한다.
- 방문경험을 논의하고 방문을 마친다.

○ 워크샷(Workshop)

○ 특징 :

워크샷은 프로그램이나 특정주제(예 : 신문만들기)의 과정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활동을 해보도록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하위집단별로 모여 전과정의 일부분을 맡아 수행한다. 활동이 끝나면 하위집단별로 각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워크샷은 집단이 작으므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자유로운 형태의 활동이므로 참여자들의 긴장이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사전준비 :

- 참여자들이 참여할 다양한 주제 영역을 선택한다. 참여자들이 여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둔다.
- 교재와 준비물을 분배한다.
- 완성된 작품을 예시로 보여준다.

○ 진행절차 :

- 참여자들이 원하는 워크샷 내용이나 과정을 선택하도록 한다.
- 선택한 워크샷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여러 워크샷에 참여해

보도록 한다. 여러 워크샷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두고 신호에 따라 다음 워크샷으로 옮겨가도록 한다.

- 워크샷이 끝나면 전체가 모여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구안법(Project Method)

○ 특징 :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과제를 선택, 계획,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과제 내용을 익히게 된다. 일종의 실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실습과 다른 점은 실습기간 동안 할 일을 참여자들이 자치적으로 선택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안법에서 수행되는 과제는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사전준비 :

- 과제를 선택한다. 과제의 선택은 지도자가 임의로 선택하거나,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거나, 지도자가 몇가지 과제목록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 진행절차 :

- 과제 수행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과제의 개요, 세부일정
 - 과제에 필요한 내용, 설비
 - 과제 수행 순서
 - 과제 진척도 기록방법
 -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 과제를 수행한다.
- 과제를 평가한다.

위에서 제시한 10개의 수련활동 방법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다. 수련활동 지도자는 이 방법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청소년 문제는 원인→결과의 환원주의적 시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정형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인간(청소년)은 목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을 구상하고 문화를 만들며, 가치를 가지며 인간의 행위는 여러가지 계획, 가치, 목적들에 의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행동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대상들과 구분이 된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특징은 인간을 부분의 합으로써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전체로 이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실천지향의 청소년문제는 사실(facts)을 발견해 내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meaning)를 만들어 내는 예술적 행위의 삶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 의미는 상황지향이며 상황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로 청소년문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해되어야 한다. 수련활동 속의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 우리춤 익히기활동의 구성

우리춤 익히기활동은 청소년들이 우리춤을 바로 알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춤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춤을 익히고, 스스로 우리춤의 의미와 훌륭함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 스스로 우리춤이 지닌 의미와 전통을 알고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독립적이면서 상호연관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심화되는 5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인식과정(우리춤 알기)
2. 이해과정(우리춤 이해하기)
3. 탐색과정(우리춤 의미찾기)
4. 실행과정(우리춤 추기)
5. 평가과정(우리춤 새모습찾기)

위에서 열거한 과정으로 구성된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보다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각 과정은 각각의 프로그램이 독립된 순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활동을 선택하여 실행해도 우리춤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5개의 과정들은 대체로 주제의 논리와 난이도에 따른 단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과정은 ① 활동과정 ② 활동내용 ③ 유의사항 ④ 참고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 ▷ 활동과정은 각 과정의 개관과 주요활동을 요약한 내용이다.
- ▷ 활동내용은 각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위활동들로서, 일반적으로 각 과정은 4~5개의 단위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위활동들은 각 활동의 과정과 지도요령, 활동방법, 도움활동, 도움자료의 순으로 짜여져 있다.
- ▷ 활동방법은 각 단위활동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강의, 공개토론, 시청각, 게시 및 전시, 토론, 분임토의, 역할연기, 현지답사, 워크샾, 구안법 중에서 적합한 방법이 제시된다.
- ▷ 도움활동은 ‘춤통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실제로 어떻게 활동이 전개되는 것인가를 가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위활동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내용이다.
- ▷ 도움자료는 각 단위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유의사항에는 각 과정의 진행 목적과 내용, 주의사항 등이 진술되어 있다.
- ▷ 참고에는 각 과정의 진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과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상상과 주변의 많은 자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마음껏 응용할 수 있는 좋은 텃밭이다. 현장속에서 충분히 응용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춤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춤 익히기 활동프로그램의 구성

과 정	단 위 활 동	활 동 내 용
인식과정: 우리춤 알기	- 마음속의 그림자를 밖으로 - 숨겨진 열정을 찾아서 - 내가 좋아하는 춤은? - 혼자 추는 춤, 함께 추는 춤	일상속에 내재한 우리춤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그 종류와 특징을 자신과 관계짓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춤에 익숙해진다.
이해과정: 우리춤 이해하기	- 춤의 원류를 찾아서 - 춤, 풍속, 한마음 - 우리춤 연출가가 되어 - 우리만의 움직임은?	지역별로 다르게 표현되는 춤의 형태를 이해하고 춤의 효과를 더하는 요소들을 살펴며 그 효과를 직접 연출해 봄으로써 우리춤을 이해한다.
탐색과정: 우리춤 의미찾기	- 내 몸은 춤 몸 - 사위따라 리듬따라 - 마음도 따라 움직이네 - 춤꾼들의 삶 들여다보기	실제로 춤을 추는 과정에서 우리춤의 표현방식을 이해하고 춤꾼들의 춤을 감상하며 그들의 춤세계에 담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실행과정: 우리춤 추기	- 상상보다 아름다운 동작 - 너, 나, 우리의 의미 - 동물모양 춤추기 - 덩실덩실 신나는 몸짓, 탈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우리춤을 추어보고 다른 사람과 춤으로 한데 어울려봄으로써 우리춤이 가지고 있는 즉흥성과 신명감을 체험한다.
평가과정: 우리춤 새모습찾기	- 함께 떠나는 답사여행 - 말이 아니어도 - 마음속의 여백찾기 - 자유, 그 끝없는 나래짓	우리의 정서가 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인식함으로써 우리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춤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다.

□ 춤통이의 우리춤 익히기

1. 우리춤 알기

춤통이는 창피했던 어제 기억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숨처럼 부드럽고 나비처럼 사뿐이 발을 움직이는데 자신의 춤은 엉거주춤하고 이상한 모양새만 되어 버린 청소년 열린마당에서의 춤추는 시간들이 악몽같이 느껴졌습니다. 운동신경이 둔한 탓일까? 아니면 유전일까? 별별 생각을 다하던 춤통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만히 서있습니다. 그런 다음 한 발을 살며시 옮기다 갑자기 쿵쿵 뛰며 질질 웃습니다. 나도 춤을 출 수 있을까? 이것이 춤일까? 아니면 발작일까? 그 순간 춤통이는 갑자기 자기의 행동에 멧적은 마음이 듭니다. 누가 보지나 않았을까?

2. 우리춤 이해하기

빠꼼히 방문을 열어보니 다행히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집안식구들이 모두 외출한 모양입니다. 춤통이는 거실에 있는 오디오를 켰습니다. 그러자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가락의 아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나의 춤을 방해하는 운명인가? 그래도 좋다, 받아들이자! 춤통이는 아리랑 음율에 맞추어 마음과 몸을 맡깁니다. 가락을 따르는 답답한 자기 몸 동작을 느끼며 마구 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꼭 참습니다. 어느새 춤통이의 몸은 정신을 따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곡이 끝나자 춤통이는 털썩 주저 앉습니다. 그 망연한 적막감이 시원한 바람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3. 우리춤 의미찾기

아! 이것 봐라, 춤통이는 우리 장단에 처음 몸을 맡겨 본 기분을 스스로 느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심심하다 아니면 축 늘어졌다? 도대체 같은 춤인데 이렇게 다른 느낌일까? 우리 춤이 느려서 그런가? 아니 서양 춤도 느린 동작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춤은 무엇일까? 나는 우리 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춤통이는 벌떡 일어나서 서가 한 구석에 있는 백과사전을 뒤졌습니다. 한국무용, 한국춤…. ‘한국무용이란 역사 이래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생성되고 전승되어온 무용일체를 가리키며 이 밖에 한국적 미형식을 바탕으로 한 현대의 창작무용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춤통이는 갈수록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전통춤이 외국의 그것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리만의 독특한 춤이 지닌 형식이나 양식은 어떤 것일까?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주제 넘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춤통이는 우리 춤에 대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4. 우리춤 추기

거실에 있던 춤통이는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서울올림픽 행사 기념 녹화데이프가 있을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즐겨 들으시던 민요음반까지 춤통이의 호기심은 발동합니다.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할 때 선생님께서 하시던 말씀. “컴퓨터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론보다는 게임부터 시작해서 직접 부딪쳐야 한다”는, 그 명언 덕택에 친구들 사이에서 컴퓨터 신동이라고 불리는 춤통이는 비디오를 보며 음악을 틀어놓고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전통 춤에 관한 지식과 기술, 동작을 충동원하여 덩실 덩실 춤을 춥니다. 때로는 눈을 지그시 감고, 어색한 손을 휘감아도 보았다가 빙글 빙글 돌기도 하면서 홀로 빠져듭니다. 시간은 흐르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즈음, 춤통이는 털썩 주저앉아 천정을 바라봅니다. 고요한 주위엔 춤사위는 사라지고 텅빈 정신만이 마음 가운데 깨끗이 남아있습니다.

5. 우리춤 새모습찾기

그 맑은 기운이 지나자, 춤통이는 통증을 느낍니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결리고 다리도 빠근하고 팔이 굳고 일어나기가 싫어집니다. 기분은 상쾌한데 몸이 가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제대로 춤을 추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우리춤의 특징일까? 춤통이는 그동안 알고 있던 우리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 우리의 춤일까? 어떻게, 어떤 때에 그리고 어떤 형식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하는 것일까? 떠오르는 질문들은 결국 춤통이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라도 바로 알고 있는가? 그러자, ‘우리 춤을 알아보자!, 그리고 배우자!, 그 다음에 판단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춤통이는 외출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우연히 들어왔던 우리춤과의 소중한 관계를 맺기 위해 문을 나섭니다.

우리 춤 알기



마음속의 그림자를 밖으로
숨겨진 열정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춤은?
혼자 추는 춤, 함께 추는 춤

1. 활동과정

개 요	일상적인 삶에 숨어있는 우리춤의 형성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춤의 종류와 특징을 자신과 관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춤과 친숙해진다.			
활 동 과 정	불쾌한 감정을 떠올리고 동작으로 표현한 후 하나씩 머리 속에서 지워 나간다.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춤의 의미와 형성동기를 생각한다.	알고 있는 우리 춤의 종류나 형태를 자신의 성격과 연관짓는다.	혼자 또는 함께 추는 춤 중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을 택하여 춘다.

2.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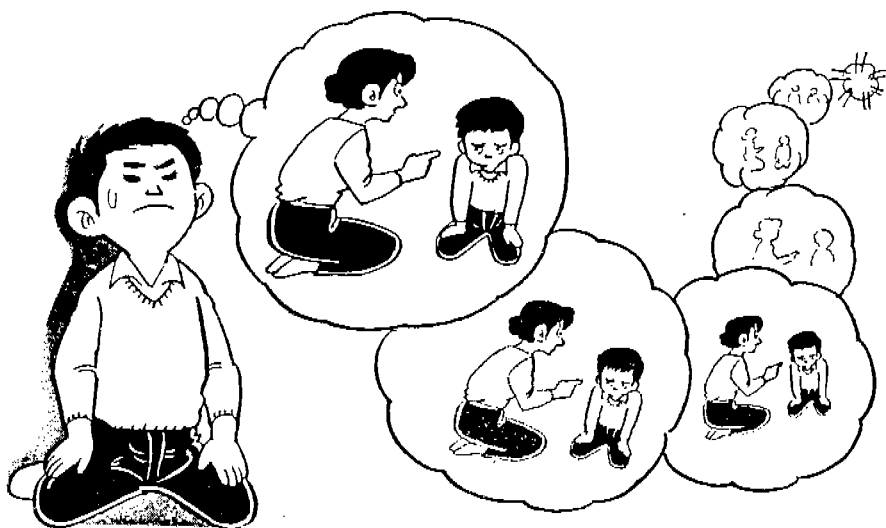
활동 1 마음속의 그림자를 밖으로

활동내용

- ▷ 눈을 감은 채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좋아하지 않는 느낌을 떠올린다.
- ▷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불쾌한 느낌이 온 몸에 퍼져가는 상상을 하고 경험한다.
- ▷ 신체를 활용하여 괴로운 마음을 표현한다.
- ▷ 머리 속에서 불쾌한 느낌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한다.
- ▷ 상상을 멈추고 1분간 눈을 감고 깨끗하고 안정된 마음을 찾는다.

활동방법

___ 시청각 ___ 토론 ___ 게시 및 전시 ☒ 역할연기



춤통이의 도움활동

모두 눈을 감고 스스로 생각하는 편안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나 상황에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느낌을 떠올리세요. 춤통이는 어제 어머니에게 꾸중받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된 일이라 화나지는 않지만 어머니 속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 몹시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머리 속을 맴돕니다. 저의 마음 속에 있는 우울한 기운이 점점 온 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거운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제 어깨는 축 처지고 우울의 조각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뼈마디에 박힙니다. 어깨의 중압감이 팔로 그리고 손가락 끝까지 전해집니다.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저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한 5분 가량 느낌에서 전해져 오는 명령에 따라 몸을 움직입니다. 고개를 벽에 기대고 그대로 주저 앉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머리 속에서 우울한 느낌과 함께 섞여 있던 섬섬한 마음, 슬픈 감정, 허탈한 생각 등을 하나씩 떠올려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고 단정히 앉아 눈을 감고 저 자신을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어떤 불쾌함도 구속하지 못하는 깨끗한 마음의 '나'를 쳐다봅니다.

인간은 내부와 외부 세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상호교환에 의존하고 있다. 외부 세계로부터 얻어지는 것에는 공기나 영양분과 같은 기본 요소뿐만 아니라 감각의 투입이 있다. 시각, 청각, 촉각 및 운동 감각을 비롯한 감각의 연속적인 흐름이 자연, 사물, 사람 및 사건들과 같은 외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감각의 투입으로 인해 행동하고자 하는 내적인 자극을 일으키게 된다. 바로 이 수용과정을 통해 우리는 경험을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표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표현하게 된다. 탐구하고 창조하고자 하는 충동으로 인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와 외부세계의 교환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다.

외부 세계로부터 얻은 지속적인 감각의 유출로 인해 우리들은 매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따로 독립된 경험들의 조각을 결합시켜 의미있는 관계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험의 상징화 및 그 배열 정돈에 이르게 된다.

경험을 상징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흔히 ‘말’을 통해 표현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는 때때로 ‘말’이 매우 부적합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일상에서 얻은 느낌, 특히 경험의 감정적인 측면을 표현해야 할 때가 그렇다. 이와같은 경우 우리는 ‘동작’, ‘음향’ 혹은 ‘그림’과 같은 다른 매체를 표출 수단으로 사용한다.

자료 : 이숙재, 1994.

활동 2 숨겨진 열정을 찾아서

활동내용

- ▷ 각자 춤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한다.
- ▷ 사방 2미터의 공간 안에서 한 사람씩 나와 3분 동안 우리 민족이나 자기 자신의 정서와 감정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 춤사위로 나타낸다.

- ▷ 채점표에 다른 사람이 발표한 동작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
- ▷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 춤의 형성동기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고, 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기념으로 준다.

활동방법	☒ 시청각	☒ 분임토의	☐ 구안법	☒ 공개토론
------	---	--	------------------------------	--

◎ 채점표

()은 각 배점

주제 선정 (20)	발표력 (20)	춤사위 (20)	발표내용과 춤동작의 일치성 (40)	총 점 (100)
아주 우수함 (20)	아주 우수함 (20)	아주 우수함 (20)	아주 잘 일치함 (40)	
우수함 (15)	우수함 (15)	우수함 (15)	잘 일치함 (30)	
중음 (10)	중음 (10)	중음 (10)	별로 일치하지 않음 (20)	

춤통이의 도움활동

저는 우리춤이 어떤 것일까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우선 춤이란 무엇일까요? 어디선가 춤은 사람의 신체를 표현매개체로 개인이나 집단의 사상, 감정, 감각, 정서 등을 율동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가 맞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춤이란 우리의 정서와 사상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정서는 한(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의 민족입니다. 아직 저는 한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이 답답하면서 우울할 때 한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춤통이는 두 발과 두 손을 얹전히 모으고 30초 등

안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다음,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오른팔은 앞으로 뻗치고 왼팔은 뒤로 젖힙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시 있다 팔목을 위로 젖힙니다. 팔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제가 워낙 기본적인 몸동작에 재능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표현할 줄 모릅니다.

이제 다른 친구들의 멋진 생각과 동작을 봅니다. 참, 홍식이는 또렷하게 말도 잘하지만 발과 손 그리고 몸의 유연성은 잠깐의 동작에서도 탁월하기 때문에 홍식이의 동작을 보고 있으면 그 마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홍식이에게 높은 점수를 줍니다. 홍식이는 참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인기도 얻고 마치 춤의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내용을 기념하여 녹음한 테이프도 얻어서요.



우리춤의 정신은 동양의 종교와 철학을 밑거름으로 하고 있고 무아의 경지에서 나오는 대자연의 율조에 의해 생성된 원천적으로 심오한 정신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우리춤은 일이나 굿, 놀이, 연극을 하나의 총체적인 것으로 모으는 연결의 고리라 할 수 있고, 흩어져 있는 인간의 활동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춤사위 하나하나에 힘이 응축되어 있고 또한 구성에서도 힘을 응축하는 형식으로 힘을 밖으로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우리춤을 ‘정적이다’, ‘한을 표현한다’라고 할 때, 이는 우리춤의 일면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춤에는 표현의 정확성과 자유 분방함과 역동성이 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자유로운 생활감정에서 우러난 교묘한 역동성이다. 이는 ‘장단을 매겨주는’ 대목에서 맺은 것을 풀어주는 이완일 경우도 있고 풀린 것을 풀어주는 긴장일 경우도 있다.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배합하여 맺고 풀고 어르고 당기는 데에 우리춤의 묘미가 있다. 이는 춤사위의 한 가락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한 작품의 진행 절차상 그 골격을 이루기도 한다. 또한 우리춤의 꾸밈은 감각적이고 섬세한 표출이라기보다는 유연하고 자연스런 율동으로 이루는 무기교적 기교의 극치를 이룬다. 이러한 우리춤은 또한 누구나 춤을 출 수 있다는 가장 인본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본적인 면에는 예술가와 관중 사이의 인간적 신뢰감은 물론 미적 공감대를 굳게 맺어주며 단순한 수동적인 감상이 아닌 작품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또한 춤의 숨씨는 기교 이전에 신명이다. 신명만 나면 발짓, 손짓은 저절로 나며 춤은 저절로 추어진다. 예술성이란 생활에서 느끼는 감흥과 신명의 집약적인 표현이므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저절로 무르녹아서 이루어지며 누구나 예술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신명을 타고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우리 춤에 접근할 수 있다.

자료 : 김매자, 1990.

활동 3 내가 좋아하는 춤은?

활동내용

- ▷ 각자가 알고 있는 우리 춤의 종류와 특징을 한가지씩 발표한다.
- ▷ 발표한 춤의 종류를 하나씩 카드로 만든다.
- ▷ 각자의 성격특성에 맞는 ‘춤카드’를 고른 다음,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 ▷ 모둠으로 나눈 다음, 각 모둠별로 카드를 하나 뽑아 선정된 춤을 춘다.
- ▷ 춤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한 모둠에게 상품(춤과 관련된 용품)을 준다.

활동방법

✓ 워크샷 _____ 토론 _____ 강의 ✓ 구안법 _____ 현지답사

◎ 춤카드 만들기

무당춤	농악무	탈춤	승무
특징 (도움자료)	특징 (도움자료)	특징 (도움자료)	특징 (도움자료)
#	#	#	#

..... 적합한 특성을 적는다.

춤통이의 도움활동

제가 알고 있는 춤의 종류는 여러 친구들이 익히 들어서 모두 아는 ‘승무’입니다. 그러나 정작 조지훈님의 시에서 나오는 승무의 이미지에 승무를 유심히 본 적은 없으니 그냥 겉껍질만 아는 정도일 겁니다. 승무는 스님들의 춤이고 정확한 특징은 모르지만 웬지 슬픈 모습과 아픔을 안으로 깊이 삭이는 인상을 주는 춤입니다. 얼핏 들은 바로는 스님들이 속세의 인연에 정신이 산란할 때 자기정화를 위해서 추기도 한다는데 제 생각인지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릅니다. (춤통이는 친구들과 함께 승무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을 찾아 춤카

드를 만들고 승무에 알맞은 사람들의 성격 특성을 기록하는 세번째 빈 칸에 ‘내성적이고 외로운 성격’이라 씁니다.)

이제 친구들과 함께 각자의 성격특성에 맞는 ‘춤카드’를 고릅니다. 홍식이는 탈춤을 고른 후, 자기가 음흉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택했다고 해서 웃음을 자아냅니다. 한 번씩 발표를 한 다음, 춤카드를 섞어 각 모둠별로 대표가 나와 춤카드를 뽑습니다. 우리 모듬은 무당춤이 뽑혔습니다. 홍식이가 분위기를 멋드러지게 타는 신세대 무당춤을 춥니다. 정지했다가 부드럽게 한 바퀴 돌고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은 뒤 다시 한번 빙그르 돈 다음, 일어서서 사방을 한번 쳐다보며 관객의 시선을 한 곳에 모으고 제자리에서 뛰다가 순식간에 엎어져 빌기도하여 웃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홍식이 덕분에 저희 모듬은 삼색의 손수건을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손수건도 춤과 관련되는 용품이라나요.



□ 우리춤의 종류

◎ 무당춤

무당춤은 무의식(巫儀式) 즉, 굿에 사용하는 춤이다. 무당의 본래 사명은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한 사람의 기원을 신에게 전달하는 신과 인간과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당들은 노래와 춤을 통하여 신의 뜻을 얻고 신의 기운을 부드럽게 하여 기원 내용을 신에게 아뢰며 동시에 신의 뜻을 예지하여 이를 인간에게 계시하는 한편, 기원이 달성된 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굿에서 춤의 기능은 신을 부르는 것과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신을 보내는 것, 나쁜 신을 쫓아내는 등의 제의적인 것을 비롯하여 신의 성격에 따른 회화적인 기능과 고통에서 벗어나 생의 활력을 주고자 하는 환희적 표현으로 오락적 기능, 마귀나 질병 그리고 죽음과 싸울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발휘기능, 점술적 기능과 함께 신격자로서 계시를 내리거나 축복을 주는 주술적인 기능 등이 있다.

◎ 농악무

농악무는 농사와 관계되는 소리와 춤으로서 우리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심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농악무는 협동과 협의의 철학에서 나온 대중적인 예술이라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생산을 담당하던 농민들이 패를 구성해 신명나게 춤 추며 놀았던 것에 반해 오늘날에는 직업적으로 농악과 농무를 행하는 농악패인 절립패가 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활동한다.

◎ 탈춤

탈춤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두레패적인 탈춤으로 마을 단위의 현지 주민에 의해 자생적인 놀이로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당패적인 탈춤으로 유랑 예인들의 놀이로 된 것이다.

두레패적인 탈춤은 농경 사회에서 집단 마을굿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대방 전래의 각종 교방잡이와 불교 선전극의 일종인 기악 그리고 공중 의식의 연희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

서 자라나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도시가 성립되자 도시탈춤으로 변모되거나 농악의 잡색 놀이로 남는다. 사당패적인 탈춤은 남사당패 덧배기와 중매구패, 걸립패, 주로 호남 지방 솃대장이패의 탈춤 등이 있으며 또한 무당굿 놀이에 등장하는 탈춤 등이 있다.

탈춤은 가무적 성격이 우세하여 원초적인 놀이성을 강조하는 독특한 연출법을 보이고 있으며 발달, 전개, 전환, 대단원으로 이어지는 갈등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탈이 갖는 은폐성, 상징성, 표현성에 덧붙여 일반 서민들의 삶을 거리낌없이 표현하고 있는데 과거 승이나 양반을 등장시켜 형식 도덕의 추악함과 특정 지배 계층의 비리를 마구 공격하면서 극적 갈등을 더해간다.

◎ 승무

초기의 승무는 탈춤처럼 상류사회에 대한 풍자 비판의 관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선 중기이후 불교가 유교에 밀려 지식계층에 외면당하자 서민, 부녀자 중심의 불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좀 더 민중과 밀착된 유형을 띠게 된다.

승무가 한의 예술이라는 점은 무복이나 복놀이 그리고 춤사위(장삼놀이) 등의 조화에서 잘 나타나며, 승무는 조지훈의 시 ‘승무’에 표현된 것처럼 고뇌를 승화시켜 희망을 가득히 안고 앞날을 기원하는 춤이다.

따라서 승무는 인간 본연의 애정과 낭만의 표현인 동시에 인간의 희비(喜悲)를 높은 차원에서 극복하고 승화시킨 이지적인 춤이라 볼 수 있다.

자료 : 김매자, 1990.

활동 4 혼자 추는 춤, 함께 추는 춤

활동내용

- ▷ 우리춤 중에서 혼자서 추는 개인무와 함께 추는 군무에 관련된 비디오를 시청한다.
- ▷ 혼자서 추는 춤을 보면서 각자 천천히 춤을 따라춘다.
- ▷ 모듈별로 나눈 다음, 함께 추는 춤을 보면서 각 모듈별로 함께 춤을 따라춘다.
- ▷ 각자 적합한 춤형태를 선택해서 혼자서 그리고 집단으로 각각 간단한 춤을 춘다.

활동방법

☒ 시청각 ☐ 게시 및 전시 ☐ 워크샷 ☒ 역할연기



춤통이의 도움활동

사실 저보고 혼자 춤을 추라고 하면 쑥스럽고 함께 추는 춤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승무 전과정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구했습니다. 과자를 먹으면서 한 번은 그냥 보고, 두 번째에는 각자 일어서서 따라합니다. 마치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을 쓰고 적막한 산사 앞 마당에서 추는 것처럼 동작 하나 하나를 흉내내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강술래가 수록된 테이프를 같은 방식으로 보고 함께 손을 맞잡고 춤을 춥니다. 저는 강강술래가 재미있습니다. 사실 강강술래가 그냥 빙빙 도는 것인줄만 알았지 이렇게 오묘한 동작이 들어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한번 더 유심히 본 다음,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넓은 공간에서 강강술래를 공연합니다. 관중은 없지만 이제는 저도 우리춤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도움자료

☐ 우리춤의 시청각자료

- 「강강술래」 (문예진흥원/36분)
- 「거상춤」 (국립극장/7분)
- 「검무」 (국립극장/5분)
- 「굿거리」 (국립극장/10분)
- 「나비춤」 (국립극장/20분)
- 「대감놀이」 (국립극장/16분)
- 「바라춤」 (국립극장/6분)
- 「살풀이」 (문예진흥원/12분)
- 「설장고」 (국립극장/13분)
- 「승무」 (문예진흥원/21분)
- 「춘앵무」 (문예진흥원/9분)
- 「태평무」 (국립국악원/18분)
- 「학춤」 (KBS/8분)
- 「한국의 전통문화예술」 (MBC/35분)
- 「한량무」 (국립국악원/9분)

○ 「허튼춤」 (국립국악원/9분)

3. 유의사항

- ◎ 이 활동은 우리춤을 아는 과정이다. 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론을 주입시키기 보다는 참가자들이 각자 생각하는 우리춤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서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 ◎ 각자의 성격과 정서에 맞는 방식으로 신체표현활동은 함으로써 춤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 가능하다면 자기의 정서를 동작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다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알려준다.

4. 참 고

□ 우리춤의 역사

원시 부족사회의 춤과 음악은 농사와 관련하여 하늘과 신에게 감사 드리는 집단적인 행사에서 사용되었던 소박한 형태였다. 여기에는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등을 들 수 있으며, 온 부족민이 모여 천신(天神)을 섬기고 큰 잔치를 벌이는 부족의 중대한 연중행사였다.

이처럼 원시춤은 실질적 목적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며 무속의식과 공동생활을 통하여 성장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의 춤은 무속 의식을 담당한 무속인(巫俗人)들의 예술적인 종교 무용과 무속에 바탕을 둔 오락적인 집단 무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남녀의 지위가 대체로 평등하여 남녀의 가무가 성행하였으며, 이는 통일 신라까지도 이어졌다.

민중 무용인 집단 무용의 변천과정을 보면, 무속에 바탕을 둔 ‘지신 밭기’가 두레제도에 힘입어 농경생활과 밀착되고 명절날 모여서 노는 사교적 오락 무용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집단 무용은 전란 때에는 전투무용적인 형식으로 변모하였으며, 불교가 서민들의 생활에 자리하면서 불교적 내용을 갖춘 춤으로 변하였고, 구한말에 와서는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부락제나 명절날을 기하여 한층 발달된 형식의 춤을 창조하게 된다.

요컨대 우리춤은 삼국 시대 이전의 원시적 생활 무용시대의 춤과 고려 때의 예인 집단이 추던 춤, 그리고 조선조 중엽 이후 민중문화가 발달한 시대의 오락적, 예술적 춤 등으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다.

□ 우리춤의 구분

한국의 전통춤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첫째, 춤을 추는 사람의 신분과 장소에 따른 분류로서 궁중무용(정재)과 민간춤(민속춤)으로 나누는 방법과 둘째, 춤의 유형적 형태에 의해 궁중무용, 민속무용, 의식무용, 신무용 등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춤은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이루어져 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줄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같은 분류 안에서도 춤의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역사적인 변천과정에서 각기 다른 양태를 보인다. 여기서는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궁중무용

장중한 멋을 자랑하는 궁중무용은 왕권정치가 확립되면서 많은 의식이 왕실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생겨나게 되었다. 궁중무용은 중국의 귀족 사회에서 들여온 춤과 이를 새롭게 우리 취향에 맞게 창작한 춤이 있는 데 일명 ‘정재(呈才)’라고 한다. 정재라는 말은 ‘어떤 기예를 고귀한 사람에게 보인다’는 뜻이다.

정재는 궁중의 향연이나 국민을 위한 연회 또는 나라의 경사 때 추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왕실의 위엄과 존엄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화려한 무복과 도구로써 우아한 음악에 맞추어 장엄한 춤사위로 충(忠)과 예(禮)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궁중무용이 유교적 관념론에 지배되어 형식의 엄격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무복의 색깔이나 무용의 기본구성은 유교의 배경 사상이 되는 오행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동양적인 색채를 지닌다. 오행이라는 것은 다섯가지의 만물(나무, 불, 토양, 쇠, 물)을 조성하는 원리로서 각각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의 다섯색으로 상징되며 이는 궁중 의상의 바탕색이 된다. 또한 이것은 동작에 영향을 주는 다섯 방향의 방위색이 된다. 청색은 동쪽(봄), 적색은 남쪽(여름), 황색은 중앙, 백색은 서쪽(가을), 흑색은 북쪽(겨울)을 나타내면서 각각 인(仁), 예(禮), 신(信), 의(義), 지(智)를 상징한다. 이렇듯 궁중무용은 유교 사상에 지배되어 절도와 질서를 중시여겨 무용수 개인의 감정이나 개성적인 표현은 억제되었다.

궁중무용은 춤을 추는 처음과 끝에 춤의 내용을 노래로써 설명한다. 춤이 시작되어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을 선구호(먼저 부르는 구호)라 하고 춤이 끝날 무렵 퇴장하기 직전에 부르는 것을 후구호(뒤에 부르는 구호)라 부른다. 이 밖에 춤 중간에도 부르고 춤추면서 부르기도 부른다. 담담하고 유유했던 장단의 흐름과 함께 춤가락이 우아하고 선이 고와 현실을 초연한 것처럼 신비스러운 멋을 준다. 사용되는 음악과 장단이 일률적이고 매우 유장하며 무용에 있어 동양화와 같은 여백이 있는데 이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고력과 유희미(幽玄美)를 감지시킨다.

궁중무용은 국가기관에 예속되어 오랜 세월동안 성장 발달한 무용으로 수세기 동안 반복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차차 틀이 잡혀지고 의식의 한 절차로서 발전하고 형성되면서 정착되어 예술적인 무용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으며 그 종류는 50여종에 이른다. 궁중무용의 복식은 대개 황홍 단삼을 입고 속은 감색, 겹은 붉은 치마를 두르고 붉은 바탕의 천에 수를 놓은 띠를 매고 화관을 쓰며 초록색 신을 신고 5색 한삼을 대는 것이 여령(여자무용수) 정재 복식의 공통점이다.

궁중정재에는 대개 의물이 사용된다. 의물은 춤을 보조하거나 내용

을 상징하는 도구의 일체를 의미하며, 이것의 주요 역할은 왕을 중심으로 왕후장상들의 완상용으로 각종 연회에서 추어진 정재에 따라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궁중의 위엄을 나타내고 춤을 돋보이도록 한다.

궁중무용의 반주로 사용되는 장단의 종류는 20박 1장단, 16박 1장단, 12박 1장단, 10박 1장단, 6박 1장단, 4박 1장단으로 분류된다. 의식무용인 일무에는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이 쓰이고, 정재에 쓰이는 연례악으로는 수제천, 보허자, 향당교주, 함녕지곡, 염불타령, 평조희상, 여민락, 길타령 등이 주로 쓰인다.

궁중무용의 종류로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향악무로 무고, 무애무, 학무 등이 있고 당악무로는 포구락, 수연장, 연화대, 오양선, 헌선도 등이 있다. 조선조의 향악무에는 가인전목단, 무산향, 처용무, 검무, 광수무, 고구려무, 선유락, 사선무, 봉래의, 문덕곡 등이 있으며 당악무에는 몽금척, 수보록, 하황은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궁중무용의 대표적인 것으로 춘앵무와 처용무를 들 수 있다.

◎ 민속무용

민속무용은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층인 민중의 생활 체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천신제, 지신제, 부락제 등 각종 행사와 대중이 즐기는 세시 풍속 가운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고 민중과 밀착되어 이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민간생활에 깊이 뿌리박고 발달되어 왔다. 따라서 민속무용의 표현 방식은 궁중무용에서 보이는 고정된 틀의 형태에서 벗어나 민중 생활의 실체를 자유로운 몸짓으로 표현한다. 또 개인의 창의를 바탕으로 현란한 의상이나 방대한 무대장치없이 세련된 동작으로 평민계급의 소박한 생활 감정을 춤으로 표현한다.

우리춤의 특징을 신명의 춤이라 할 때 이는 종교적인 현상으로 신령과 인간의 일체감이 불러 일으키는 영적인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체감을 통해 깊이 응어리진 것을 해소시킨다. 이 신명은 민중의 생활을 표현한 예술의 원천으로서 삶의 비극을 희극적인 것으로 해체시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나아가는 충동으로 이루어진다.

민속춤은 그 내용이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것이 많고, 지방색이 짙으며 개성이 뚜렷하고 특히 가면무용 등은 연극적 요소와 사회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장단은 염불, 타령, 굿거리 외에 남도 무악과 시나위 장단이 쓰인다. 특히 탈춤 중에는 독특한 음악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민속무용은 실제 생활에서 우러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춤을 출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민속춤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살풀이, 승무, 강강술래, 농악, 무속춤 등이 있다.

자료 : 김매자, 1990 ; 성경린, 1992.

우리 춤 이해하기



춤의 원류를 찾아서
춤, 풍속, 한마음
우리춤 연출가가 되어
우리만의 움직임은?

1. 활동과정

개 요	지역별로 다르게 표현되는 춤의 형태를 이해하고 춤의 효과를 더하는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고 직접 연출을 해 봄으로써 우리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파악한다.			
활 동 과 정	춤의 지역적 발생 동기와 독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각 모듬별로 문제지를 통해 평가한다.	지역별로 춤이 갖고 있는 상징 구조와 풍속과의 관계를 그림을 통해 살핀다.	춤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옷과 음악, 색채 등이 내는 효과를 설명하고, 간단한 춤 도구를 만든다.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춤과 관련된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춤을 춘다.

2. 활동내용

활 동 1 춤의 원류를 찾아서

- 활동내용**
- ▷ 모듬으로 나눈 후 각 모듬마다 지역별 춤의 발생기원과 특성이 수록된 자료를 토대로 10개의 객관식문제를 출제한다.
 - ▷ 각 모듬이 출제한 문제를 모두 모아 순서를 정리해서 하나의 문제지로 만든다.
 - ▷ 자료를 치운 다음, 각 모듬별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 ▷ 문제를 다 푼 다음, 모듬별로 채점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모듬에게 기념품을 준다.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강의 ☐ 워크샷 ☐ 현지답사

문제 1 다음 중 상고(원시)시대에 가장 특징적인 춤은 무엇입니까?

1. 무속무(굿춤) 2. 장구춤 3. 승무 4. 부채춤

문제 2 다음 중 고구려 무용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중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직선적이며 동적인 발랄한 모습 2. 세심하며 온화한 모습
3. 황당하고 웃기는 모습 4. 곡선적이며 정적인 모습

문제 3 다음

1. 학무



춤통이의 도움활동

우리춤은 우리의 역사만큼 오랜 전통과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시대별로 춤의 발생동기와 형태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궁중무용에는 검무(劍舞), 무고(舞鼓), 학무(鶴舞) 등이 있고, 민속무용에는 승무(僧舞), 살풀이, 강강술래 등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무용과 고려시대 무용 그리고 조선시대 무용 등 각 시대별로 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 이번 시간은 이 방대한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됩니다. 시험은 이야기만 나와도 지겨운데, 재미있는 우리 춤을 공부하면서도 또 시험을 봐야 한다니요!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출제해 본다는게 색다르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저희 모듬은 불쌍한 동료들을 위해 가능하면 쉽게 출제하기로 합니다.

문제 1. 다음 중 상고(원시)시대에 가장 특징적인 춤은 무엇입니까?

- ① 무속무(굿춤) ② 장구춤 ③ 승무 ④ 부채춤

문제 2. 다음 중 고구려 무용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중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직선적이며 동적인 발랄한 모습 ② 세심하며 온화한 모습
③ 황당하고 웃기는 모습 ④ 곡선적이며 정적인 모습

문제 3. 다음 중 통일신라때 유행했던 춤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학무(鶴舞) ② 검무(劍舞)
- ③ 처용무(處容舞) ④ 무애무(無碍舞)

문제 4. 다음 중 살풀이를 설명한 말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남도(南道) 무무(巫舞) 계통의 살을 푸는 춤이다.
- ② 북도(北道) 검무(劍舞) 계통의 살을 만드는 춤이다.
- ③ 중도(中道) 한량무(閑良舞) 계통의 살을 쫓는 춤이다.
- ④ 배(선박) 위에서 위급한 일에 부딪혔을 때 살려달라고 비는 춤이다.

문제 5. 다음 중 강강술래가 발달한 지방은 어느 곳입니까?

- ① 호남지방 중 전남 도서, 해안지방 ② 울릉도
- ③ 경남지방 중 경남 내륙지방 ④ 서울의 행주산성 부근

문제 6. 다음 중 학무(鶴舞)의 반주음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긴 염불도드리(영산회상의 여섯째 곡) ② 회심곡
- ③ 수심가 ④ 신아리랑

문제 7. 다음 중 민속무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검무 ② 한량무 ③ 농악무 ④ 살풀이

문제 8. 다음 중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해서지방의 탈춤은 어느 것입니까?

- ① 봉산 탈춤 ② 고성 오광대 ③ 송파 산대 ④ 양주 별산대

문제 9. 다음 중 승전무(북춤)가 발생한 지방은 어디입니까?

- ① 통영 ② 서울 ③ 인천 ④ 함안

문제 10. 다음 중 오구굿(씻김굿)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비는 굿
- ② 일년 내내 집안의 무사 태평과 행운을 비는 굿
- ③ 한 마을의 행운을 비는 굿
- ④ 우리 먹거리를 많이 달라고 비는 굿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출제했나 궁금하지만 조용히 음악을 듣고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다립니다. 김영동님의 ‘꽃분네야’라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휴, 다 정리되었나 봅니다. 이제부터 시험이라나요. 우리 모두의 흥식이는 지금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출제할 때는 신났는데 시험이라면 신물이 난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실전에는 강하지만 이론에는 약하다고 호들갑입니다. 생각보다 진지하게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무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드디어 펜을 놓고 발표 시간이 다가옵니다. 진실이네 모두가 일등을 했습니다. 흥식이가 옆에서 샘을 냅니다. 우리춤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최고냐, 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라고.... 여하튼 그처럼 웃고 떠든 시험이 없습니다. 부담도 없구요. 진실이네는 국악의 해 기념 마크가 새겨진 차잔을 선물로 받고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도움자료

□ 지역별 춤의 특성

우리춤은 풍토적인 조건에 따라 지역적으로 다르다. 가령 산악지대의 춤과 평야지대의 춤, 북부, 중부, 남부지역의 춤이 각각 다르다. 산악지대에서는 타지방과의 교류없이 그 부락에서 자생한 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춤의 종류가 많지 않고 단조롭고 빠른 춤이 많다. 이와는 반대로 평야지대에서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춤의 종류도 많고 다양하며 예술성이 높고 균형이 잡힌 멋을 가지고 있는 춤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춤은 기후에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춤이 분포되어 있다. 북부지방(관서, 관북, 해서지방)은 평안도와 함경도, 그리고 강원도 일부 지방을 말하는데, 이 곳의 춤은 대체적으로 무당춤과 같은 의식무용과 탈춤과 같은 민속무용이 발달되었고 농악이나 소리춤과 같은 것은 빈약하다. 그런데 이 곳의 춤들은 비교적 활달하고 용맹스러운 춤사위로 짜여져 있어서 남쪽의 춤과는 대조적이다. 중부지방(기호, 호서, 관동지방)은 경기도 충청도 일부와 강원도(영서지방)를 포함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곳의 춤문화권은 경기도

가 주축을 이룬다. 이 곳의 춤은 서울이라는 양반문화의 영향권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성격도 유순하고 섬세하며 모나지 않고 차분하다. 따라서 탈춤이나 농악에서 보듯 섬세한 기교와 모나지 않고 작은 춤사위로 구성된 차분한 춤이라 할 수 있다.

남부지방은(호남, 영남지방)은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과 같은 온화한 기후를 가진 곳을 말한다. 경상도의 춤은 남성적이고 절도가 있는 춤인데 비하여 전라도의 춤은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는 여성적인 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상도가 탈춤이 발달한 곳이라면 전라도는 농악과 소리춤이 발달한 곳이다. 남부지방 춤의 공통점은 춤의 종류도 많고 흥겹고 멋스러운 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북방생활권은 농악무보다는 탈춤, 무속 무용이 발달했으며 무속이 크고 활발하며 거칠고, 중부내륙권은 무속이 적고, 차분하며 아기자기한 멋이 있으며, 남부해안생활권은 전체적으로 민중적인 춤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영남 지방의 경우 탈춤이, 호남 지방의 경우 농악이, 제주도의 경우 굿춤이 성행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 정병호, 1992.

활 동 2 춤, 풍속, 한마음

활동내용

- ▷ 지역별로 대표적인 춤을 선정한 후, 그 춤에 대한 상징성을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한다.
- ▷ 각자 종이에 풍속에 관련된 자료와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춤의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 ▷ 각자 자기의 그림을 객관적인 사실과 자신의 상상을 곁들여 설명하고 평가를 받는다.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분임토의 ☒ 게시 및 전시

제 고향은 서울인데 서울의 전통춤이 있기는 하겠지만, 마땅히 생각나는 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친구에게서 들었던 지방춤을 떠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 지방에서 추는 춤으로 이름도 색다른 ‘몽두리 춤’입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사진하고 그 친구의 설명이 하도 재미있어서 인상이 깊은 춤입니다. 줄을 맞추어서 앞으로 행진을 할 때 가끔 어떤 친구가 긴장해서 다리하고 팔이 같이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왼쪽다리가 앞으로 나갈 때 오른팔이 따라가야 하는데 왼팔이 나가는 모습 말입니다. 보통 때는 해보라고 해도 힘든데... 여하튼 장난삼아 그렇게 걸어보기도 하는데 마치 ‘몽두리 춤’이 그와 같습니다. 그 춤을 상상하면 ‘웃기려고 일부러 팔과 다리를 함께 앞으로 내미는 코메디’가 생각납니다. 저는 이 ‘몽두리 춤’으로 이번 시간에 승부를 걸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잘 못그리니 어떻게 합니까? 글로써 설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몽두리 춤은 왼손 옆에서 몸 앞으로 흔들기와 왼발돌기, 오른손 옆에서 몸 앞으로 흔들기와 오른발 돌기, 이러한 요령으로 동작을 번갈아가면서 활달하게 추는 춤입니다. 이 몽두리 춤을 생각하면 오뚜기 인형도 떠오르고 뚱뚱한 사람이 뒤통 뒤통하는 모습도 상상됩니다. 경상도 예천지방에서 많이 춘다는데 아마도 농사를 마치고 흥겹게 춤을 추다가 한 사람이 막걸리 한 잔에 얼큰하게 취해 뒤통거리면서 소피볼 곳을 찾아가는 뒷 모습을 누군가 보고 발상한 춤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순전히 이 춤통이가 만들어 본 몽두리 춤의 창작 유래입니다.

이 ‘몽두리 춤’과 비슷한 것으로 ‘몽둥이 춤’이 있습니다. 이 춤은 몽둥이처럼 몸 전체를 거칠게 움직이면서 쾌활하게 추는 춤으로 주로 남성들이 추는 춤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이 몽두리 춤은 허튼춤의 한 유형이라고 나옵니다. 서민들이 힘겨운 농사생활의 끝에 풍요롭게 펼쳐지는 추수기의 누런 벼를 보고 그간의 고통과 갈등을 신명으로 풀어버리려는 마음에서 나온거랍니다. 아마 이 몽두리 춤은 농악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추는 뒤풀이 춤이겠지요.



저의 엉뚱한 설명에 다른 친구들은 킬킬대면서 웃기도 하고 그것도 춤인가 의아해 하는 것도 같습니다. 저 춤통이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의적인 상상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료 : 정병호, 1992.

도움자료

□ 민속춤의 지역적 분포

허튼춤은 춤추는 사람이나 지역에 따라 춤추는 요령과 명칭이 다르다. 보릿대춤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 분포되어 있고 절굿대춤이나 도굿대춤은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많이 추고 있다. 또한 황새춤은 주로 경남지방에서 추고 있으며 몽두리춤과 범부춤은 주로 경상도 지방의 춤이다. 그리고 함경도 지방의 춤에는 손춤이 있다. 손춤은 돈돌날이 소리에 맞추어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을 펴는 춤,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을 펴고 손목을 돌려 정지시키는 춤 등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춤이다.

모방춤은 흔히 농악판이나 탈판 또는 굿판에서 추지만 어떤 춤판이

든간에 흥이 났을 때 추는 춤이다. 이 춤은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많이 추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의 행위를 흉내내는 병신춤은 밀양지방에서 많이 추었고, 동물의 모방춤에서 유래한 학춤은 부산 동래 지역에서, 두꺼비 춤과 개구리춤은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서 주로 전승되고 있고, 오리춤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곰춤은 전라도에서 전승되고 있다.

자료 : 정병호, 1992.

활동 3 우리춤 연출가가 되어

활동내용

- ▷ 모듈별로 하나의 춤을 선정하여 적합한 음악과 옷 그리고 색채 등을 고른다.
- ▷ 각자 음악과 옷 그리고 색채 등의 부분을 담당하여 춤과 관련된 특성을 적는다.
- ▷ 각 모듈별로 관련 음악과 옷 그리고 색채 등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설명하고 한 부분이 빠졌을 때 영향을 말한다.
- ▷ 각자 간단한 소도구를 이용하여 춤에 활용할 물품을 만든다.

활동방법

___ 워크샷 ☒ 토론 ☒ 게시 및 전시 ___ 공개토론

춤통이의 도움활동

이번 시간은 우리춤에 사용되는 옷과 음악 그리고 조명 등이 춤을 어떻게 더 돋보이게 하고 어떤 도구가 춤에 적합한지 살펴봅니다. 춤이 예술로 표현될 때에는 춤 자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춤추는 사람이 춤에 적합한 옷을 입었는지, 춤의 분위기에 맞는 음악이 배경으로 선택되는가입니다.

저희 모듈은 처용무(處容舞)를 선택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처용무는 처음에는 1인무로 추었으나 차차 5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5방 처용무'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학춤, 연화대무, 5방 처용무가 합설무로서 궁중 정재로 되었다고 합니다. 5방

처용무는 종교적 상징으로 청, 적, 황, 백, 흑이 모두 자기가 맡은 방위를 지키고 또 빈틈을 노려 침입할지도 모르는 잡귀를 감시하는 구성으로 마주 보거나 등을 대는 동작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 춤은 호방한 남성적 성격을 드러내는 춤으로 관중에게 집단활동의 중심 점을 표현하고 최소한의 절제된 표현 양식으로 동일한 감정을 전달하는 궁중 무용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모듬에서는 달복이가 설명합니다. 처용무를 선정하였고 그 상징적인 색채는 빨간색을 위주로 한 강렬한 색채인데, 원래 처용무가 귀신을 쫓는 춤이라 귀신은 빨간색에 대해 질색할거라고 생각해서 였고, 음악은 슬픈음악으로 귀신을 유인하여 장중한 음조로 귀신의 물리치고 그의 퇴각을 더욱 제촉하는 것이며 무늬가 많은 현란한 옷도 귀신의 정신을 사납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용무에서 음악이 빠졌을 경우, 언제 귀신이 와서 물러나는지 명확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저희 모듬은 낚은 속내 외에 다섯가지 색을 칠한 후 한 번씩 입어보고 처용의 마음을 그려 봅니다.



춤의 종류	상징적 색채	적합한 음악	옷
처용무	빨간색을 중심으로 한 강렬한 색	슬프면서도 장중한 곡	무늬가 많은 현란한 옷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저희 조는 5가지 색깔의 옷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저 춤추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흥식이를 제외하고 모두 춤과 관련된 음악을 찾고, 도구를 만듭니다.

도움자료

□ 처용무

○ 옷과 색채 : 옷은 오방의 빛깔에 따라서 청(靑) 황(黃) 홍(紅) 백(白) 흑단(黑段)으로 한다. 앞은 짧고 뒤는 길며, 목은 둥글고 넓으며 가슴은 네모지고 길다. 앞과 뒤 및 두 소매에는 만화(蔓花)를 그린다.

○ 음악 : 봉황음 - 처용무에 쓰이는 음악을 청함

수제천(壽濟天)

가곡 언락 : 남창가곡 우조의 10번째 곡

우편 : 남창가곡 우조의 11번째 곡

활 동 4 우리만의 움직임은?

활동내용

- ▷ 각자 춤 하나를 선정한 다음,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외국 춤과 비교한다.
- ▷ 선정한 춤을 추는데 필요한 도구를 선택한 다음, 도구를 이용하여 춤을 춘다.
- ▷ 우리춤과 유사한 외국 춤을 추고 난 다음, 느낌을 발표한다.

활동방법

___ 구안법 ___ 공개토론 ___ 강의 ☒ 역할연기



춤통이의 도움활동

홍식이이 신나는 시간입니다. 각자 우리춤 하나를 선정한 후 외국 춤과 비교하라는 말에 다른 친구들은 우리춤 하나와 유사한 외국춤을 대비하여 열심히 그 특징을 적고 있는데, 우리의 홍식은 종류만 적어놓고 혼자 빙빙 돌립니다. 그가 선택한 우리춤은 허튼 춤의 일종인 ‘엉덩이 춤’입니다. 그리고 외국춤에는 ‘람바다’를 적어 놓습니다.

홍식은 ‘엉덩이 춤’이 팔을 흔들면서 제자리 또는 앞으로 걸어가거나 제자리를 돌면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대는 해학적인 춤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맞는 말이라나요. 어쨌든 그는 앞으로 서너 발자욱 걸어갔다가 엉덩이를 좌우로 어떤 때는 앞뒤로 흔들어 대며 자기의 유연성을 뽐냅니다. ‘엉덩이 춤’을 추는데 필요한 도구는 자기처럼 잘생긴 엉덩이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암전히 있던 종원이이 작은 북(소고)을 하나 집더니 북춤을 추는데 환상적입니다. 홍식이 코가 납작해집니다. 멋지게 씩씩거리던 홍식은 드디어 외국 춤인 ‘람바다’를 한바탕 춥니다. 그리고는 외국춤은 음악이 없으면 도대체 흥이 나지 않는데 우리의 ‘엉덩이 춤’은 음악이 없어도 동작이 나오고 또 ‘람바다’보다도 경쾌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홍식이의 말이 걸썩습니다. 즐거운 생각을 하니가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가 썰룩거린다나요. 그래서 우리춤은 내면의 흥으

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한바탕 연설을 합니다. 모두
흥겨운 시간입니다.

도움자료

□ 외국춤을 통해 본 우리춤의 특징

서양춤은 중세에는 그리스도교의 탄압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다가 1489년 이탈리아 왕국에서 고전발레 형태가 발생되어서 예술로서의 춤으로 이어졌고, 그 후 발레가 프랑크 왕국에서 자라고 러시아에서 황금기를 이룬 후, 20세기에 와서는 현대발레가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양춤과 비교하여 살펴 본 우리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서구무용이 주로 하체(다리, 발) 중심의 무용으로 발달한 것에 비해 우리의 춤은 상체(손, 팔, 어깨)를 중심으로 발달한 춤이다. 서구무용이 선을 구사함에 있어서 인체를 중심으로 해부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외향성을 주로 강조하여 하체 기교의 발전을 요구하였고 강약의 표현에 있어서도 동적인 활발한 움직임으로 해결한 것에 반하여, 한국무용은 육체보다 영적인 면을 강조하여 정신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도하고 갈구하는 선의 자세로 내향성의 발전을 이루었다. 영적인 표현은 완만한 곡선 위에 유동적인 동작들이 억제된 움직임—정중동(靜中動)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상에 있어서도 일반 사람은 물론 무원의 무복도 폭이 넓고 길이가 긴 치마를 입으므로 치마 속에 감추어진 하체의 움직임은 상체 움직임의 안정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뿐이었고 서구의 무용처럼 하체의 동적인 기능의 발휘를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서구의 무대는 상향성으로 관객의 윗쪽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자연히 상체보다는 관객의 시각과 동거리인 하체의 표현이 발달했으며 한국의 평면공간(뜰, 마당)은 관객과 수평 위치에 있는 상체 표현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궁중무용인 정재는 곡선을 주요 선으로 하고 감정표현이 억제되는데 발레는 움직이는 선이 직선적이고 감정 표현이 노골적이다. 서양의 민속무용은 대개 단순하고 경쾌하며 사교성이 강한 데 비해 우리의 민속

무용은 온근한 신비속에 계몽적이고 풍자적이며 해학적이다.

3. 유의사항

- ◎ 이 과정은 우리춤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춤의 기원과 지역별 발생동기와 함께 춤에 따르는 음악 및 의상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춤의 형성과정과 여건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 ◎ 춤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과 편견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 뒤,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 ◎ 우리춤의 형태나 모양보다 춤의 사회적 위상과 우리 생활과의 연관성을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 주는 방법으로 정리한다.

4. 참 고

☐ 우리춤의 발달

◎ 부족국가시대

우리춤의 기원은 부족국가시대의 제천 의식인 고구려의 동맹(東盟), 부여의 영고(迎鼓), 예의 무천(舞天)에 있다. 모든 춤의 발생이 그러하듯 우리의 춤도 고대사회의 신앙의식이나 생활 전반에 그 발생 기원을 둔 것이다. 이러한 제천의식은 음악, 노래와 춤이 함께 어우러져 원시종합예술로서 집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 삼국시대

삼국시대에는 절대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피지배자에게 군왕에 대한 절대복종과 충성심을 불어 넣기 위한 수단으로 예술이 사용되었고 춤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달되었다.

◎ 통일신라시대

통일이 되면서 신라의 춤은 용신에게 제사지낼 때 추던 호방한 남성의 성격을 표출한 처용무를 비롯하여 남산신의 형상을 드러낸 상염무 등 국가를 보호하는 신에 대한 춤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처용무는 고려시대 민간 잡희인 산대잡극에서 중요시된 춤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극시적 형식을 보여 준 것이다. 그 밖에 지금까지 현존하는 춤으로 검무, 사선무, 선유락 등을 들 수 있다.

◎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당악 정재가 수입되었고 국가의 경사 때나 외빈의 접대에 의례적으로 공연하는 궁중무용이 시작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무속의식과 불교 행사에 영향을 받는 전통적 향악과 외래음악인 아악, 당악의 삼부악으로 크게 나뉘어 발달하였는데 특히 거국적인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에서는 여러가지 재주가 담겨진 가무백희가 있었다고 하며, 지금은 남사당패들의 죽방울놀이, 장대타기, 줄타기, 꼭두각시놀음 등으로 전하고 있다.

◎ 조선시대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송유억불정책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이 모두 유교사상으로 전환되어 충, 예, 의, 덕이 강조되었다. 조선시대의 춤은 한 마디로 유교풍이 내포된 궁중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것은 개국의 창업을 칭송하고 왕조의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 집단과 집단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당시의 가치관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조에서 순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많은 춤이 창제됨으로써 조선은 궁중무용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 신무용시대

한일합방이 되면서 궁중에서 상류층을 위해서 존재했던 궁중무용이 민간무용과 한 무대에서 관중과 만나게 되었다. 또 일본을 비롯한 서구와 대륙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무용은 해방 뒤 한국의 현대 무용과 외국 무용 부문의 모체 역할을 하여 이 시기에 창작무용이 시작되었다. 창작무용의 유형으로는 한국 전통의 소재와 춤사

위를 이용하되 무용의 진행에서 서구의 양식을 섞어서 펼치는 것으로서 이같은 무용을 통칭하여 신무용이라고 한다. 이 시기에 활동한 무용가들 중에서 당시 민족무용의 주역으로는 한성준이 활약했다. 그는 무용만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조선무용연구소’를 1934년 열어 1938년 원각사 무대를 시발점으로 하여 1941년까지 4년 동안 민속무용을 공연함으로써 세련되고 틀이 잡힌 민속무용을 이룩하였다.

◎ 1960년 이후

1960년 한국학이 대두하고 주체성 찾기 운동에서 민족 의식의 재건 기운이 각계에서 활성화 될 즈음에 한국의 무용계도 차츰 민족 의식의 길로 전환을 하게 된다. 김천홍이 1960년 ‘처용랑’이라는 작품으로 서울시 문화상을 받게 되면서 한국의 무용계는 한국 고유 문화를 제도적으로 육성,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창작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료 : 김매자, 1990.

□ 춤과 다른 예술의 관계

◎ 춤과 음악

춤과 음악은 그 발생학상의 이론부터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예술이다. 시간예술인 음악은 현실적 공간과는 관계가 없이 시간만의 리듬적인 질서로 되어 있음에 반해, 운동의 리듬적 질서는 현실적 공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음악에 의존하여 음악에 충실히 맞추어 춤추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춤이라 할 수 없으며 기술적으로도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 춤은 공간예술이므로 자체의 독특한 형식을 갖는 것이며 이는 순수 시간예술인 음악의 형식과는 근본부터 틀린 것을 알 수 있다.

춤에서의 운동은 원칙적으로 심리적인 원인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춤 운동의 충동이 되는 조건 가운데 음악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임은 사실이다. 이는 인간의 신체 구조가 그렇게 생겨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감정이 고조될 때 춤을 춘다. 음악이 반영되고

그에 따라 충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춤에 있어서의 음악은 작품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춤과 의상

의상이란 작품의 상황이나 춤추는 사람이 처해있는 환경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춤에서 의상이 필요한 것은 의상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운동을 위해서 자연스러움을 느낄 정도의 의상이 필요하다.

춤에서 의상은 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춤에 사용되는 의상은 춤을 위한 의상이어야 하며 춤에서의 동작을 보조하고 표현 효과나 연출 효과를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춤의 의상은 춤작품에 융해되어 인상이 남게 되었을 때 춤의 의상으로서 성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춤을 위한 의상은 작품과 조화되고 융해되므로써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 춤과 조명

춤에서의 조명의 위치는 중요하다. 춤에서의 조명의 역할은 반주음이나 의상과 같이 춤을 적극적으로 보조하여 작품을 완전하게 한다. 조명은 공간과 공간의 관계를 확실히 하여 그 목적을 보충하는 것이다. 또한 조명은 의상의 색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춤의 주제와 동기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조명은 시각, 사실, 심미, 표현 등의 4가지 요소로 나누어 진다. 시각적인 요소는 빛의 양과 질을 말하며 사실적 요소는 시간과 날씨, 분위기 그리고 기타 사물의 묘사이며 심미적 요소는 빛이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현적 요소란 빛을 여러가지 상태로 변화시킴으로써 또는 색채에 의하여 갖가지 감정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조명이 주는 다채로운 심미적 표현을 말한다.

◎ 춤과 미술

춤극에 있어 무대장치는 중요하다. 무대장치의 목적은 배경, 장면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에 있어 미술은 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조명과 더불어 무대효과를 최고로 나타낸다. 그러나 미술은 적절한 위치와 상황에 설치되어야 하며 만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춤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자료 : 송수남, 1988.

□ 역사와 풍속에 따른 춤의 특성

우리나라 춤은 풍토적 조건과 풍속적 조건, 사회환경적 조건과 역사 그리고 개인적 생활방식과 인생관에 따라서 지역마다 각기 다른 형태를 띤 춤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교류를 통해 변천해 왔다.

우리나라는 비록 넓은 땅을 가진 민족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기질과 풍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풍속과 문화를 크게 나누면 단오문화권, 단오와 추석문화권, 추석문화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오문화권은 고구려의 역사와 풍속을 바탕으로 한 한강 이북과 강원도 지역이며 단오와 추석문화권은 신라의 역사와 풍속을 바탕으로 한 경상도 지역이다. 또한 추석문화권은 백제 역사와 풍속을 바탕으로 한 전라도, 충청도 일부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삼국시대의 생활과 문화를 가지고 있고 춤도 나름대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구려적인 춤, 백제적인 춤, 신라적인 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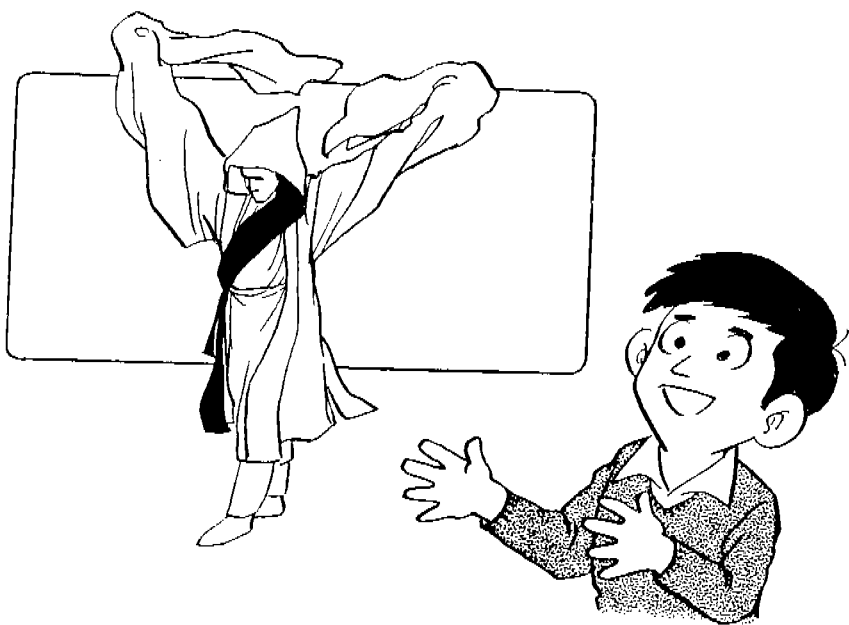
고구려는 기후적으로 한대지방으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마민족의 영향으로 전투적이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춤은 거칠고 활달하며 전투적인 춤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춤은 오늘날의 해서지방의 탈춤이나 무당춤과 같은 춤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춤들을 보면 도약춤이 많아 무뎡이 크고 절도가 있으며 손짓춤은 각을 이룬 춤이 많다.

백제는 광대한 농토를 가지고 있어서 농경문화가 발달하였고 남중국에서 불교문화를 받아들여 불교문화가 발달하였다. 이들은 생활이 풍부하고 문화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유순하고 향락적이며 낙천적인데다가 예술감각이 발달하였다. 춤의 경우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으로 부드럽고 우아하며 아름다운 곡선과 미를 갖춘 이른바 손짓춤이 일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이러한 춤이 그대로 남아서 오늘의 지방무용인 살풀이 춤이나 승무와 같은 춤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라인은 무뚝뚝하고 담백하고 의리가 있는 인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화랑도를 통해 함심하여 당초에는 소국이었으나 삼국통일을 이룩하였고 통일후에는 고구려, 백제, 당문화를 받아들여 나뭇대로의 신라문화를 형성하였다. 이 신라의 문화는 지금도 경상도 문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춤의 경우 고구려의 도무와 절도가 있는 손짓춤, 그리고 백제의 부드러운 곡선적인 손짓춤이 복합된 도무와 직곡선적인 춤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신라적인 춤의 특징은 이른바 덧배춤이라 할 수 있다.

자료 : 정병호, 1992.

우리 춤 의미찾기



내 몸은 춤 몸
사위따라 리듬따라
마음도 따라 움직이네
춤꾼들의 삶 들여다보기

1. 활동과정

개 요	실제로 춤을 추어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춤의 표현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하고, 춤꾼들의 춤을 감상하여 그들의 춤세계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한다.			
활 동 과 정	선정한 춤과 율동을 모둠별로 몸을 움직여 표현한 다음, 정확히 맞는지 판단한다.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는 어떤 춤이 적합한지 판단한 다음, 춤을 춘다.	하나의 춤을 선정하여 춤사위의 순서를 알아보고 실행한다.	우리춤의 흐름과 유명한 춤꾼들의 춤추는 모습을 찾는다.

2. 활동내용

활 동 1 내 몸은 춤 몸

- 활동내용
- ▷ 제시하는 단어를 모둠별로 몸을 움직여서 표현한다.
 - ▷ 정확하고 신속하게 표현하는 네 개의 모듬을 뽑은 후, 그 모듬만 다시 제시하는 단어의 모양을 함께 만든다.
 - ▷ 균형있고 보기 좋게 만든 두 개의 모듬을 뽑은 후, 제시하는 우리춤을 형상화하여 춤을 춘다.
 - ▷ 가장 잘한 모듬을 선정하여 기념품을 준다.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게시 및 전시 ☒ 역할연기

춤통이의
도움활동

몸으로 글씨쓰기 게임을 하자니까 이쪽 저쪽에서 깔깔거리며 난리도 아닙니다. 홍식이는 벌써 어떤 글씨가 주어질까 상상하고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저희 모둠에는 ‘통’이란 글자가 주어집니다. 어떤 친구는 드러눕고 어느 친구는 다른 친구의 목에 올라가 서있고 간신히 글자를 만들었는데 아니 이건 ‘통’이 아니고 ‘통’자가 되어 버립니다. 다시 ‘통’을 만듭니다. 다행히 3등입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하늘 천(天)글자를 만든 후 몸무게 대로 한 줄을 만들어 서야 합니다. 홍식이는 이미 하늘 천자 윗부분을 담당한다고 옆으로 누워있습니다. 자기는 뭐든지 머리가 되어야 한대나요. 그런 다음 몸무게 대로 줄을 서 있는데 우리의 체중대로 서있는지 체중계로 가늠해 본답니다. 아니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여자 친구들은 게임이고 뭐고 줄행랑을 놓으려는 찰나에 다시 체중계를 치우더니 그 때까지 끄떡 않고 있는 진실이네와 구진이네 모둠을 뽑아 버립니다. 아이고 작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 자기의 전공영역 앞에서 무너져버린 홍식이를 달래며 다른 모둠을 봅니다.

진실이네 모듬은 ‘살풀이 춤’을, 구진이네 모듬은 ‘부채춤’을 추



어야 합니다.

진실이네 모듬은 하얀 수건을 하나씩 손에 든 다음 함께 물려 진행했다가 다시 멈춘 뒤 수건을 던져 자리에 떨어뜨린 다음 다시 몸을 굽혀 엎드려서 수건을 집어 들고 일어서서 수건을 공중에 휘날리며 마치 발레하듯이 미끄러져 전체가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끝맺음을 합니다. 박수가 나오는 동시에 진실이가 수건을 다른 친구들에게 던지며 “모든 액은 다 물렸거라” 한마디로 인사를 대신하고 들어 갑니다. 결국 진실이네 모듬이 1등을 해서 기념품으로 연필을 받습니다.

활동 2 사위따라 리듬따라

활동내용

- ▷ 준비한 음악을 모두 함께 듣는다.
- ▷ 5미터 전방에 곡의 제목이 적힌 음악막대기를 준비하고 각 모듬에서 한 명이 나와 고리를 던진다.
- ▷ 고리가 들어간 음악막대기에 따라 음악이 나오고 모듬별로 적합한 춤을 춘다.
- ▷ 가장 잘한 모듬을 선정하여 음반을 한장씩 선물한다.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분임토의 ☐ 현지답사

춤통이의 도움활동

“아무렴—그렇지—그렇고 말—고 한오백년—살자는데…” 인기있던 대중가수가 부른 노래가 아닌 진짜 ‘한오백년’이 흐릅니다. 어릴 때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언제부턴가 대중가요로 만든 한오백년에 길들여져서 잊고 있었습니다. 참 구성지고도 슬프지만 가냘픈 음악은 아닌 듯 합니다. 이번 시간은 곡목이 적혀 있는 막대기를 여러개 준비하고 우리가 고리를 집어넣어 음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춤을 추는 일입니다. 흥식이는 벌써 ‘골라잡아 한 곡 짱’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어느 음악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다. 우리 모듬은 제가 대표로 나섭니다. 고리를 던지는 선에 서서 5미터 전방에 있는 음악막대기를 봅시다. 홍식이는 옆에서 밀양아리랑의 곡이 적혀 있는 막대기를 조준하여 던지라고 난리입니다. 춤을 잘추는 친구가 추천하는 곡이라 그 곳을 향하여 고리를 던집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나 봅시다. 고리는 밀양아리랑 막대기를 아슬하게 빗나가 그 옆에 있는 무속음악 막대기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무속음악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쿵 쿵 쿵덕쿵...” 그저 아래 위로 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있어야지요. 모두들 뛰고 있는데 갑자기 홍식이가 엎드렸다 일어나더니 사방팔방으로 뛰면서 예전에 유행했던 권투선수의 발놀림을 흉내냅니다. 결국 우리 모듬은 창의성은 좋았지만 일체감과 전통미가 없어 등 수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번에도 진실이네 모듬이 일등입니다. 제가 보아도 잘 했습니다. 대금산조에 맞추어 운율을 담아내며 좋은 춤을 추었으니까요.



도움자료

□ 음악막대기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음악

- 가야금산조 : 함동정월류
- 경기민요 : 경복궁타령, 자진방아타령, 창부타령, 한오백년
- 강원도민요 : 정선아리랑
- 거문고산조 : 김윤덕류
- 남도민요 : 육자백이, 새타령
- 대금산조 : 한주환류
- 무속음악
- 사물놀이
- 시나위
- 농요

활 동 3 마음도 따라 움직이네

활동내용

- ▷ 춤 하나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춤사위를 그림으로 만들어 순서를 섞어 놓는다.
- ▷ 모둠으로 나눈 후, 각 모둠마다 춤사위의 순서대로 나열한다.
- ▷ 각 모둠에서 한 사람이 나와 배열된 순서대로 춤을 춘다.
- ▷ 정확히 순서를 맞춘 모둠을 뽑은 다음, 적절한 상을 준다.
 - 예) 꼼꼼이상 — 순서를 정확히 맞춘 모둠
 - 엉터리상 — 순서가 가장 맞지 않은 모둠
 - 그래도 잘 취소상 — 순서가 맞지 않아도 그럴싸한 모둠
 - 실천보다는 이론상 — 순서가 맞아도 춤이 서투른 모둠

활동방법

 시청각 토론 강의 워크샷 역할연기

춤통이의 도움활동

춤사위를 그린 여러 장의 그림이 앞에 있습니다. ‘살풀이춤’의 동작 순서를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참, 아무리 내려보아도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서 끝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춤의 황제인 홍식이기도 자기 사전에 이런 춤의 전형은 없다고 투덜거립니다. 제가 보아도 어지럽기만 합니다. 여하튼 우리 모듬은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봅니다. 그리고 준비된 하얀 수건을 하나 들고 우리의 기둥인 홍식이가 모듬의 대표로 시범을 보입니다. 가능한 부드럽게 동작을 취하려는 홍식이가 우습기도 하고 진지하게도 보입니다. 결국 우리 모듬은 원래 순서와는 다르게 춤을 추었지만 그래도 홍식이의 성실한 자세 덕분에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한 ‘그래도 잘 취요’상을 받습니다. 우식이네 모듬이 가장 근접하게 순서를 맞추었지만 다 순서대로 춤을 춘 모듬은 없습니다. 진실이네 모듬은 순서가 전혀 맞지 않아 영예롭게도 ‘엉터리’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실이네 모듬을 이긴 홍식이가 기뻐합니다. 사실 진실이하고 홍식이는 많이 싸우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살풀이춤은 무속의식에서 ‘액을 풀어낸다’는 뜻에서 파생된 듯하다. 이것은 무속음악 가운데 살풀이라는 낱도 무악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으로 오늘날 상연되고 있는 한국 무용 가운데 오랜 역사와 함께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분포를 가지고 전승된 것 가운데 하나이다. 무속에 기원을 두고 무당들이 신을 접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던 살풀이춤은 훗날 광대나 기생들에 의해 춤의 내용이 한층 예술적으로 다듬어져 아름다운 기법과 형식으로 발달하여 기방무용으로 계승·발전되었다.

살풀이춤은 고운 머리에 비녀를 꽂고 흰 저고리와 치마에 버선, 그리고 옷고름이 늘어진 복장에다 하얀 수건을 가지고 추는 춤이다. 이 수건을 오른팔, 왼팔에 얹고 또 던져서 자리에 떨어뜨린 후 몸을 굽혀 엎드려서 수건을 어르고 그 다음에 집어들고 일어서서 빠른 장단에 맞추어 공간에 수건을 휘날리며 추는 정중동의 미가 극치를 이루는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춤이다.

몹시 긴장된 듯하다가 폭풍처럼 힘이 터져 나오는 듯하며 의식을 집행하는 것 같은 형식을 통해 감정이 표출된다. 발동작은 아주 고결하면서 온누리를 세밀히 다지는 듯하다. 이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기(기생)들의 한과 슬픔의 생활을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키는 인간본연의 이중감정을 표현한다. 신명의 춤으로서 살풀이는 춤의 황홀경에서 세속적인 속박들을 끊어 버리게 하여 자신이 모든 세계와 어우러져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자료 : 김매자, 1990.

활동 4 춤꾼들의 삶 들여다보기

활동내용

- ▷ 우리춤의 흐름과 각 춤의 계보와 유파에 대해 조사한다.
- ▷ 대표적인 우리춤 비디오테이프를 골라서 다함께 시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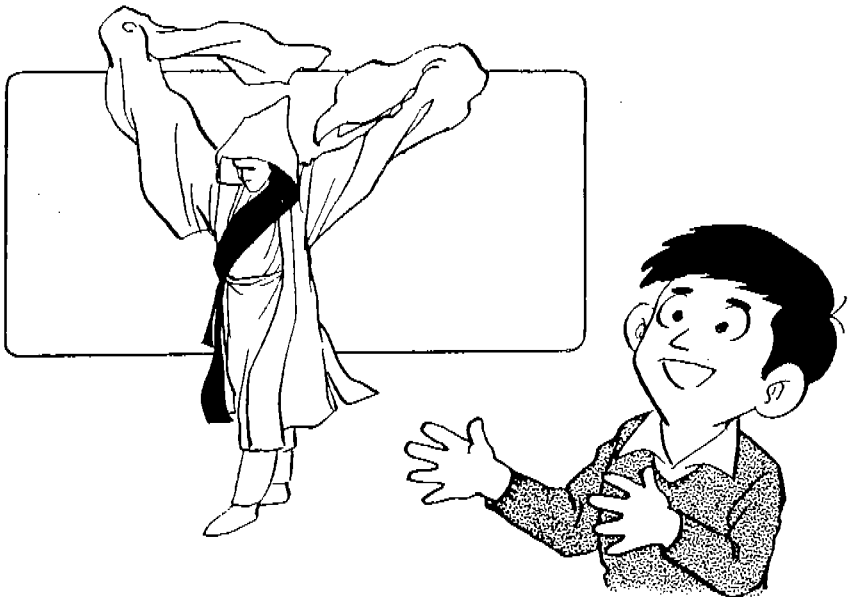
▷ 각 춤별로 대표적인 무용가를 선정하여 그의 춤세계를 안다.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분임토의 ☐ 현지답사

춤통이의 도움활동

우리춤은 민족의 고난 속에서도 그 맥을 연연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술한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은 이어오고 있고 단일민족의 끈끈한 정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춤은 근대사회로 들어오고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위기에 빠집니다. 춤이 유희의 도구로만 전락함으로써 그 예술적 전통이 사라지려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춤을 이어나온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춤통이인 제가 아는 한성준님도 그런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는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에서 태어납니다. 7살 때부터 외할아버지로부터 춤을 배운 그는 춤과 함께 줄타기, 땅재주 등을 익히며 재인으로서 역량을 키워옵니다. 이후 그는 당대의 명창인 송만갑, 이동백, 정정렬 등과 공연하며 이름을 날립니다. 그리고 궁중무용을 접한 그는 나중에 태평무와 학무를 만들게 됩니



다. 그리고 조선무용연구소를 창립하여 제자를 가르치며 일본에 우리의 전통 춤을 소개하고 신무용을 받아들여 새롭게 우리춤을 이어나간 전통과 현대의 분기점에서 민족의 전통과 정서를 이어준 큰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분의 춤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우리 무용계의 큰 인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아는 척했나요? 사실 예전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이 생각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승무’ 비디오테이프를 봅니다. 제9회 대한민국 무용제 명무(名舞) 공연실황을 녹화한 이 비디오테이프는 이매방님의 승무 출사위가 멋들어지게 펼쳐집니다. 남자분이지만 어찌면 그렇게 고운 자태를 갖고 있는지 감탄만 나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승무는 크게 경기형과 호남형으로 구분합니다. 이 테이프의 주인공인 이매방님은 호남형 승무의 대표적 인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분입니다. 그리고 경기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한영숙님입니다.

도움자료

□ 승무의 구성

◎ 장삼을 입은 무용수가 느린 염불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긴 장삼 소매가 공간에 뿌려지는 형상은 초인적인 춤의 형태로서 다른 춤에서는 볼 수 없는 승무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승무에서 염불부분은 가장 어렵고 심오한 맛이 진하게 깔려 있으며 승무의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 이어서 도드리(볶는 염불) 장단에 맞추어 장삼 소매자락으로 북을 몇번 치다가 허튼 타령으로 넘어간다. 이 도드리 염불가락은 끝맺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 타령으로 넘어가는 데 앞서 염불은 장중하고 무거운 무태로써 변화무쌍한 인간의 감정을 내면적으로 표현하였으나 타령은 그 음악 자체의 리듬과 같이 춤이 활달하고 직선적이며 통쾌한 멋으로 일관되는 춤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 볶는 타령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장삼 자락으로 북을 잠시 어르다가 굿거리로 넘어간다. 이 굿거리 춤은 얼핏보면 타령과 같은 것이나 그 리듬이 조금 다르다. 타령은 직선적이며 박이 또박또박 끊

어지면서 다이내믹하고 의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굿거리리는 그 형식이 모나지 않고 둥글며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부드러움이 있으며 즉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굿거리 부분에서는 깊고 얕은 수만가지의 흥과 멋이 총망라되어 나타나며 무용수의 감정을 가식없이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 이렇게 한참 굿거리 춤이 고조될 때 자진모리로 넘어가면서 긴 소매자락에서 복채를 꺼내어 복을 두드리게 된다. 승무에서 복을 두드리는 부분이 춤의 절정을 이루게 되면 완전 몰아지경에 이르게 된다.

◎ 잠시 후 북소리가 멎고 다시 차분한 감정으로 굿거리 혹은 살풀이 음악에 맞추어 무대를 정리하면서 연풍대를 들고 합창하면서 끝을 맺는다.

자료 : 송수남, 1988.

□ 춤 명인에 대한 시청각자료

○ 「악(樂), 가(歌), 무(舞)의 정화 - 김천홍」 (MBC/우리시대의 명인/1991. 6. 20/60분) 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과 제39호 처용무의 예능보유자인 김천홍은 14세되던 해(1922년) 이왕직 아악부 제2기생으로 국악과 인연을 맺은 후, 85세가 된 지금까지 무와 악의 달인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궁중무용은 물론이고 정악과 민속악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는 그는 현재 후진양성에서 부지런하고 발빠르다. 그가 도달한 예술의 세계와 그가 이루어온 예술적인 업적을 살펴본다.

○ 「한국춤의 정상 - 이매방」 (MBC/우리시대의 명인/1991. 5. 2/60분) 승무와 살풀이 두 부분의 인간문화재인 이매방은 오늘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전통춤의 일인자이다. 7살때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하여 60년 가까이 춤의 인생을 살아온 이매방은 춤사위뿐만 아니라 인간자체 또한 전통적인 한국춤꾼의 원형을 보여준다. 우리시대의 거의 마지막 명인이라 할 수 있는 이매방의 예술과 삶을 통해 한국적 명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살펴본다.

○ 「춤으로 남은 인생 — 이동안」 (MBC/우리시대의 명인/1991. 8. 1/60분) 남사당패에 줄타기를 배운 것에서 시작하여 역동적인 그만의 춤세계를 갖게 된 이동안은 줄타기출신의 춤꾼이다. 춤보다는 줄타기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다른 어느 재주보다도 춤을 아끼고 사랑한다. 79세이던 1983년부터 춤을 선보이기 시작하였고 발탈춤, 태평무, 신칼대신무는 그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86세의 고령에도 춤을 계속 추며 후진을 양성하는 이동안의 인생을 돌아본다.

○ 「일인 창무극의 명인 — 공옥진」 (MBC/우리시대의 명인/1991. 6. 13/60분) 78년 공간 사랑 소극장 개관기념 무대에서 조개를 주우며 여흥으로 추었던 병신춤을 선보인 공옥진은 일인 창무극 ‘심청가’, ‘홍부가’를 새 레파토리로 개발하여 큰 반응을 얻었다. 남도 명창 공대일의 딸로 어려서부터 놀이판과 무대 가까이에서 춤과 노래를 익힌 공옥진씨는 한국의 익살광대로 타고난 듯 해학과 흥내내기의 재주꾼이기도 한다.

○ 「춤인생 70년, 하보경 옹」 (KBS/한국탐구/1990. 6. 28/60분) 경상도 밀양에서 태어나 오로지 70평생을 전통 민속춤으로 살아온 하보경의 일대기가 소개된다. 민속놀이인 백중놀이를 보존시켜 오면서 양반춤, 범부춤, 오북춤, 병신춤 등 여러 종류의 전통춤을 개발, 오늘날까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하보경 옹의 일대기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고 근본은 무엇이며 문화전통의 맥은 어떻게 유지, 보전되어야 하는가를 알아본다.

3. 유의사항

◎ 이 과정은 우리 춤사위의 특징을 알고 실제로 춤을 추어보도록 구성하고 있다. 춤의 기본적인 매개체인 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동적으로 표현한다.

- ◎ 우리춤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음악과 노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춤을 지켜보고 춤사위를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참 고

□ 민속춤의 춤사위

◎ 춤사위의 의미

춤사위라는 말은 민속예능인들에 의해 구전으로 내려왔으므로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춤사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춤동작’, ‘춤모양’, ‘춤과 춤의 사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데 이 때 사위는 ‘짜임새’, ‘걸음새’, ‘박을새’ 등 춤모양이나 동작 등을 뜻한다. 따라서 춤사위는 무용의 표현체인 신체적인 움직임, 율동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속춤은 의식무용이나 고전무용에 비하면 상징적으로 전형화된 춤사위가 비교적 적고 대부분이 즉흥적으로 추는 춤사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 즉흥적이라는 의미는 제멋대로 춘다는 말이 아니고 춤을 출 때 그 춤사위의 배열을 고정시키지 않고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화조절한다는 의미이다. 사위의 유형에 따라 민속춤은 탈춤이나 소리춤처럼 고정된 춤사위를 순서대로 배열해가면서 추는 춤과 농악이나 허튼춤처럼 개개인의 무용적 표현원리에 따르는 춤사위를 즉흥적으로 배합하여 추는 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춤사위의 형성요인

○ 종교적 요인

무의식(巫儀式)에서 무당들이 신을 맞이하여 점신하거나 오신하기 위한 춤을 추면서 점차 상징적인 춤사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악귀를 물리치기 위한 주술적 축귀무용을 추게 됨

으로써 거칠고 전투적인 춤사위가 전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간신앙인 지신밟기로 인하여 농악이나 탈춤, 소리춤과 같은 춤에서 발디딤에 따른 춤사위가 형성되었고 유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손짓 춤사위가 생성되었다. 또한 불교의식의 춤은 불교적인 상징동작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다.

○ 모방적 요인

우리나라의 춤사위에는 동물을 모방한 춤사위가 있고 사람의 몸짓이나 노동동작 등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경상도 지방의 학춤, 거북이춤과 같은 동물 모방춤과 황새춤과 같은 허튼춤, 호랑이, 소, 말과 같은 가장동물춤, 탈춤에 나오는 사자춤, 원숭이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물모방에서 나온 춤사위를 예를 들면 농악의 부포놀이에서 나온 새가 모이를 주워먹는 흥내의 ‘전조시’, 찌꼬리의 움직임을 모방한 ‘찌꼬리 상모’, 승무에서 나타나는 학의 흥내라 할 수 있는 ‘학채’, 북청사자춤에 사자 머리를 좌우 상하로 흔들어대는 ‘모대기 치기’, 사자가 옆으로 뛰는 ‘모걸음 치기’ 등이 그것이다.

○ 전투적 요인

농악의 진풀이나 쇄꾼의 부포놀이, 소고잡이의 채상모놀이, 북춤 등에서 볼 수 있는 전투적인 춤사위나 강강술래와 같은 소리춤의 답무, 무속춤의 거칠게 추는 춤가운데 전투적인 춤사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탈춤에서는 적을 방어하거나 격퇴시키는 무술적인 춤사위를 많이 엿볼 수 있는데 이는 고대 가면무용이 무술적인 몸짓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풍자적 요인

이른바 모방춤인 용구춤이라든가 거북이춤, 그리고 탈춤에 있어서 할미와 영감춤, 취발이춤, 노장춤과 첫목중춤에서 나타나는 성모의적인 춤사위나 사람의 몸짓을 병신스럽고 우스꽝스럽게 나타내는 허튼춤(병신춤)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춤의 낙천적이고 해학적인 심성을 풍자적인 동작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음악적 요인

탈춤은 타령, 굿거리, 잣은모리, 중모리, 염불가락으로 추고, 소리춤은 염불, 중모리, 중중모리, 잣은모리 가락으로 춘다. 허튼춤은

굿거리, 타령, 중모리, 잣은모리로 추고 농악은 주로 외가락만 가지고 추는 경우와 ‘암채, 숫채가락’으로 추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느린 가락에서 빠른 가락으로 이동하는 춤은 반복동작이 많은 춤에 속하며 맺고 푸는 춤은 엇박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규칙보다는 즉흥적으로 변화가 많은 춤사위가 생성된다. 또한 탈춤과 허튼춤에 있어서도 느린 가락으로 인해 느릿한 춤사위가 나왔고, 2박 형식의 음악 때문에 반복동작이 형성되었으며 빠른 가락에 의해서는 거칠고 전투적인 춤사위가 형성되었다. 또한 3분박 4박자 형식의 가락이 있어서 엇박춤이 나왔으며 맺고 어르다가 푸는 가락이 있어서 정중동의 춤사위가 형성된 것이다.

○ 무복과 장식적인 요인

무복은 평복과 특수복으로 나뉘어진다. 평복차림의 남성춤에서는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발로 뛰는 사위가 발달하였으며 여성들은 춤옷으로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발을 들지 않고 손을 움직이는 사위가 발달하였다. 또한 특수복을 입고 추는 춤은 주로 종교적인 춤과 예술적인 춤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수복의 춤옷은 색채도 화려하고 거니와 옷모양도 미려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옷의 모양에 따라 그것과 대비된 춤사위가 자연스럽게 꾸며진 것이며 의상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춤사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밖에도 무구나 그 장식품에 따라서도 춤사위는 영향을 받고 있다.

◎ 춤사위의 발달과정

민속춤의 춤사위가 생성·발전한 과정을 보면 첫째 단계에서는 동물이나 노동행위, 그리고 주술적 기능으로 추어진 춤이기 때문에 춤사위는 모의적인 것과 노동적 동작, 그리고 축귀와 점신, 오신을 위한 주술적 상징동작이 형성되었다. 둘째 단계에서는 춤이 한층 의식적인 형식을 갖춘 종교의식 무용이 되어 춤사위도 전형화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전투적인 기능을 가진 춤, 오락적 기능의 춤들이 한층 많아져 여기에 맞는 춤사위가 생성되었다. 그리고 세번째 단계에서는 춤이 오락적인 기능 뿐만 아니라 예술적 기능으로까지 발전하여 나름대로 미적 형식을 가진 춤사위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춤사위의 기본적인 짜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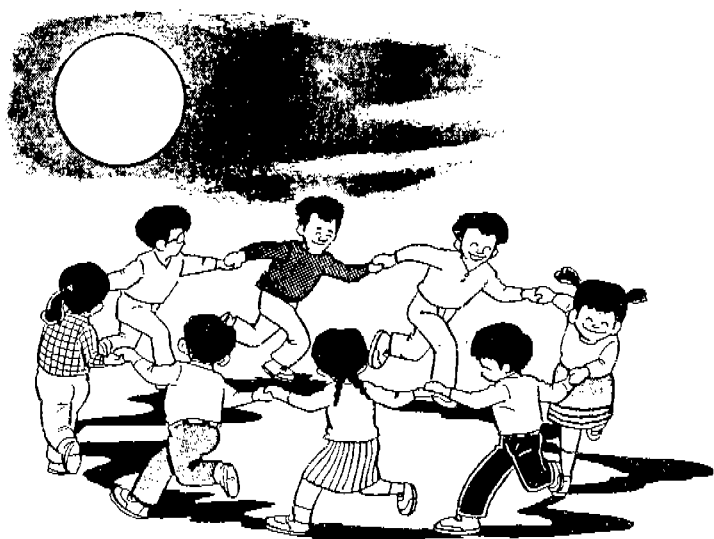
민속춤 춤사위의 기본적인 짜임새는 맺는 형과 어르는 형, 그리고 푸는 형 등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맺는 동작에는 팔 올리는 사위, 여미는 사위, 펴는 사위, 모으는 사위, 비껴 든 사위, 팔 내리는 사위, 디딤 사위, 짚는 사위 등이 표준형이고 어르는 형에는 없는 사위, 끼는 사위, 팔 돌리는 사위, 목놀이 사위, 어르는 사위, 팔 굽히는 사위, 앉는 사위, 앞걸음 사위, 뒷걸음 사위, 한 발 드는 사위, 부동작 사위, 멈추는 사위 등이 있다. 푸는 형에는 뿌리는 사위, 좌우치기, 도는 사위, 무릎 굽히는 사위, 뛰는 사위, 회전 사위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동작소의 기본적인 짜임새는 맺는 형인 경우 춤의 진행에 있어서 시동을 거는 도입부적인 역할과 종결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여기에 비해 푸는 형인 경우 감정을 발산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동작표출적인 요소가 양성적이며 물리적 현상은 등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은 감정의 긴장을 풀기 때문에 동작이 쾌활하고 활달하며 운동의 질은 움추리거나 굽히는 등 앞드리는 형태의 폐쇄적인 동작과는 달리 모든 동작이 관절을 펴서 경쾌하고 시원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푸는 춤사위의 특징은 개방성에 있다.

어르는 형은 맺었을 때 일어나는 긴장상태를 유연스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나 고조된 감정을 진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등 맺고 푸는 동작을 할 때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어르는 동작의 주된 기능은 하나의 춤사위를 형성할 때 음양관계의 갈등이나 대립현상과 같은 것을 잘 조절해서 융합시키는 일종의 연결부나 종결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르는 춤사위는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 동작의 융합, 교류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료 : 정병호, 1992.

우리 춤 추기



상상보다 아름다운 동작
너, 나, 우리의 의미
동물모양 춤추기
덩실덩실 신나는 몸짓, 달춤

1. 활동과정

개 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우리춤을 추어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춤을 추어봄으로써 우리춤이 가지고 있는 즉흥성과 현장성, 신명감을 체험한다.			
활 동 과 정	우리춤의 춤사위 유형을 살피고 실연한다.	집단적으로 출 수 있는 우리춤을 선정하여 야외에서 모두 함께 춤을 춘다.	각종 동물의 형상을 상징화한 춤을 통해 우리춤의 무한한 표현방식을 안다.	탈춤을 추고, 그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함께 토론한다.

2. 활동내용

활동 1 상상보다 아름다운 동작

활동내용

- ▷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우리춤을 골라 춤사위를 살핀다.
- ▷ 춤사위 중 특징적인 면을 찾은 다음 강의를 통해 파악한다.
- ▷ 특정한 종류의 춤에 관심이 있는 사람끼리 모임을 편성한 다음, 한 사람씩 춤사위를 실연한다.
- ▷ 각 모둠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춤을 함께 춘다.

활동방법

___ 시청각 ___ 토론 ☒ 강의 ___ 구안법 ☒ 역할연기

**춤통이의
도움활동**

휴! 이제는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춤통이는 벌써 걱정이랍니다. 춤이라면 자신이 넘치는 흥식이가 옆에서 ‘자유-자유-’라고 외치듯 흥얼거리듯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도 명색이 춤통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나온 저도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춤은 춘앵무입니다. 찌꼬리를 상징하는 노란 앵삼을 입고 붉은 띠를 허리에 두르며 7가지 색의 한삼을 손목에 끼고 오색으로 장식된 부용관을 머리에 얹은 복장입니다. 밑에 깔린 화문석 위에서만 추는 우아하고 단정한 향악정제입니다. 몇 번 본 적이 있는 춘앵무의 무용동작은 비리, 탐탐고, 타원양정, 화전태, 낙화유수, 여의풍, 비금사, 회파신, 과교선, 연귀소 등 많은 무용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앵무는 입체적인 울동미가 아닌 평면적인 선을 보여주는 궁중 무용의 멋을 지닙니다. 전통적인 윤리관을 선으로 표현하여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으로 몰입되는 평안과 고요를 느끼게 합니다. 음악의 장단도 일률적이고 장엄한 가운데 유장하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고력을 심어주고 유현미를 느끼게 해주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춘앵무 중에서도 귀하고 값지게 평가하는 화전태(花煎態)는 교양을 척도하는 훌륭한 춤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춘앵무는 전문적인 능력이 없으면 표현하기 힘든 춤입니다. 그래서 저 춤통이의 마음은 춘앵무에 있지만, 춤사위도 힘들고 또 좋아하는 친구도 없어서 몇몇 친구들이 관심있어 하는 점무도품에 들어갑니다. 검무는 신라시대에 발생되어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계승하여 우아하고 쾌활하게 발달되어온 춤으로 현재 남아있는 궁중무용 중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춤이라고 합니다.

춤통이는 검무의 춤사위 중 숙은사위를 택합니다. 숙은사위는 한삼을 끼고 서서 무릎을 굽혀 도는 춤사위입니다. 오른손을 머리위로 구부려 들고 왼손은 가슴앞에 비스듬히 내려 두 무릎을 굽혔던 자세에서 일어나면서 왼쪽으로 돕니다. 제가 실연하고 난 후, 우리 모듬은 집단무의 성격이 강한 검무를 몇가지 배운 기본동작에 맞추어 열심히 춥니다. 적을 죽이려는 살벌함보다는 미적인 검무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춥니다.

도움자료

□ 검무의 춤사위

◎ 검무의 역사

검무는 가면무의 일종으로 고려말까지는 가면을 쓰고 추다가 조선 시대에 일반 백성들과 가까와져 모든 민속행사에 함께 행해지면서 하나의 민속무용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후 궁중으로 들어가서 도감청에 의해 정리되어 현재의 진주검무로서 전래되어 왔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 원형은 점차 변모되고 약화되어 오늘날과 같이 칼을 쓰지 않으며 적을 죽이려는 살벌함보다는 미적인 검무로서 확립되어 왔다.

◎ 검무의 춤사위

○ 숙은사위

숙은사위는 한삼을 끼고 무릎을 굽혀서 도는 춤사위이다. 오른손을 머리 위로 구부려 들고 왼손은 가슴앞에 비스듬히 내려 두 무릎을 굽혔던 자세에서 일어나면서 왼쪽으로 돕니다.

○ 입춤사위

입춤사위는 머리 위로 든 오른손과 가슴 앞에 든 왼손의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제치고 오른발을 앞으로 디디고 무릎을 굽히며 몸을 뒤로 약간 제친다. 이 춤사위는 양쪽에서 무용수들이 서로 마주서서 춤을 춘다.

○ 앉은사위(안진가락)

앉은사위는 앉아서 추는 춤사위로 두손으로 전복자락을 잡기도 하고 양손을 앞으로 놓으며 몸을 엮드리기도 한다.

○ 자반뒤집기(연풍대가락)

허리를 앞뒤로 구부렸다, 제쳤다 하면서 빙빙도는 춤이다. 진주검 무에서 사용하는 연풍대는 다음의 네가지이다.

- 칼을 양옆 겨드랑이에 끼고 연풍대를 하는 경우
- 칼을 양 옆구리에 끼고 연풍대를 하는 경우
- 양쪽칼을 휘두르는 즉 쌍칼질을 하며 연풍대를 하는 경우
- 왼손은 왼쪽칼과 함께 옆구리에 끼고 오른손만 칼질을 하며 연풍대를 하는 경우

○ 손사위

손사위는 맨손으로 팔을 펴고 서서 추는 동작을 말한다.

○ 방석돌이

방석돌이는 1박자에 머리 위에 든 오른손과 가슴 앞에 든 왼손의 손가락을 펴고 손바닥을 뒤로 젖힌 다음, 2박에 두 손을 양 어깨위에 들고 3박에 두 손을 내리며 뒤로 젖히고 4박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일어선다.

자료 : 송수남, 1988.

활 동 2 너, 나, 우리의 의미

활동내용

▷ 우리춤에서 함께 추는 집단무 중 하나를 선정한다.

- ▷ 모듬을 나눈 다음, 각 모듬마다 집단무에 필요한 음악을 준비한다.
- ▷ 집단무를 춘 후, 다른 모듬이 출 때 장단을 맞춘다.
- ▷ 다함께 집단무를 춘 후, 느낌을 나누고 평가를 받는다.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게시 및 전시 ☐ 분임토의

춤동이의 도움활동

우리모듬은 강강술래를 선택합니다. 원형대로든, 아니면 간단하게 든 한번쯤 강강술래놀이를 해보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겁니다. 강강술래는 흥식이 말대로 강에서 하는 술래잡이 놀이가 아니고, ‘강강’은 ‘원’을 뜻하는 것이고 ‘술래’는 ‘돈다’라는 뜻으로 원으로 돈다는 의미입니다. 강강술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은 임진왜란 때에 수군 통제사인 이순신장군에 의해 왜군을 무찌르기 위한 하나의 병술로서 창안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강강술래는 고구려의 동맹이나 동예의 무천 등과 같이 풍년을 기원하는 범민중적인 잔치로서 정월 대보름의 주술적인 의례와 팔월 한가위날의 추수 감사 제례에 행해지는



것이며 이러한 행사가 모체가 되어 발전된 민속무용이라 합니다. 강강술래를 멋드러지게 하려고 밖으로 나가자 환한 보름달이 황토 빛 땅을 푸릇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평소에 느리던 종원이가 분위기에 감동했는지 재빠르게 준비한 녹음기의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자 긴강강술래의 음악이 나옵니다. “강 - 가 아 - 앙 - 수 - 우 울 - 래 - 강 - 가 앙 - 수 울 - 래...”에 이어서 중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고사리깍기, 청어엮기 등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둥글게 서서 장단에 맞추어 빙빙 돌아갑니다. 진양조, 중중모리가락, 자진모리가락 등이 계속해서 흐릅니다. 춤에 몰두한 우리 모듬은 음악이 그친 후에도 선소리꾼으로 자청한 종원이의 지휘에 따라 때로는 빠르게 그러다가 느리게 변화하며 서로 흥을 고조시키고 시원하게 끝을 맺습니다.

이어 진실이네 모듬이 농악무를 추러 나옵니다. 우리 모듬은 이어지는 흥겨움에 열심히 장단을 맞춥니다. 진실이네 모듬이 끝나고 우식이네 모듬의 집단 무속무로 이어진 한바탕 춤잔치가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모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 모여 차례로 함께 춤을 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속이 후련하다”는 친구부터 “보기 보다는 매우 힘든 춤이다”라는 사람까지 까만 밤에 홀연히 떠있는 달이 점점 더 밝아질 때까지 우리춤과 전통과 민족의 정서에 대해서 속삭입니다.

도움자료

□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정월 영남지방의 지신밟기, 경기도 일대의 답교놀이와 함께 세시풍속놀이의 하나로 삼한 시대의 제천의식인 5월의 기풍제와 10월의 추수감사제의 집단 원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한가위에 즐겨하는 호남 지방의 집단 무용이다. 이 춤은 주로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춤과 노래와 오락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춤으로 놀이성이 강하다. 하체 중심의 역동적인 율동으로 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생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월(滿月)을 의미하는 큰 원형을 이루면서 진행한다.

□ 농악무

농악은 우리나라의 춤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심성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춤이다. 다만 농악이라는 명칭이 어느 때부터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마 궁중악이 왕성할 때 정악과 구분하기 위해 ‘농사꾼이 하는 음악’이라는 뜻에서 이름지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오늘날 팽과리를 치고 장구치며 노는 것을 농악이라 부르는 데 옛날에는 농악을 가리켜 ‘풍물’, ‘풍장’, ‘사물’, ‘매구’, ‘두레’, ‘걸궁’, ‘걸립’ 등으로 불렀다. 농악의 기원은 노동설과 제의설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노동설은 농악이 농경 외례 곧 생산과 풍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고, 제의설은 농악이 제천의식인 소도의 제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팽과리, 징, 장구, 소고라는 타악기로 이루어지는 농악은 팽과리의 쇠가락이 음악의 단위가 되어 가락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춤을 추게 된다. 그러나 이들 춤 가운데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예술성을 질게 나타내는 춤은 쇠꾼이 추는 부포놀음과 장구잡이들이 추는 설장구춤, 북꾼들의 춤, 소고잡이가 추는 긴춤과 채상모놀이춤 등이 있다. 농악의 춤은 상모놀이를 위주로 한 윗놀이춤과 손짓 발짓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밑놀이춤으로 나뉘는데, 윗놀이춤은 빠른 춤이기 때문에 전투적인 춤이라 할 수 있고, 밑놀이춤은 느린 춤으로 멋이 있고 낙천적이며 의젓한 춤이다. 이러한 춤을 통해 민중적 의지와 미감에서 나온 구수한 멋, 풍자적인 멋, 시원스러운 멋, 아기자기한 멋, 투박스러운 멋 등이 흥겨운 가락에 배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활동 3 동물모양 춤추기

활동내용

▷ 상자에 동물을 그린 종이를 넣은 후, 모둠마다 하나씩 고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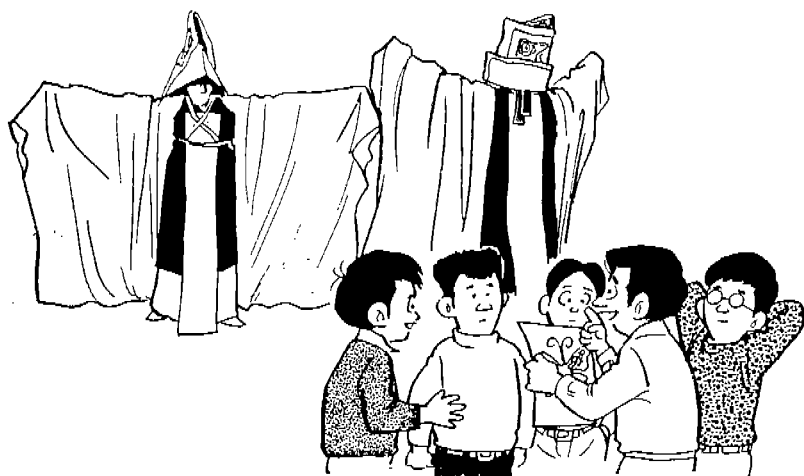
- ▷ 각 모둠에서 한 명이 대표로 나와 뽑은 동물의 특징을 신체로서 표현한다.
- ▷ 모둠별로 관련되는 동물춤을 배운다.
- ▷ 함께 모인 자리에서 모둠별로 동물춤을 추고 가장 잘 한 모둠을 뽑아 상을 준다.

활동방법

___ 시청각 ___ 게시 및 전시 ☒ 강의 ☒ 역할연기

춤통이의 도움활동

뽑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우리 모듬의 대표인 홍식이가 각종 동물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를 상자에서 하나 꺼냅니다. ‘나비춤’입니다. 역시 홍식이 만큼 나비 흉내를 잘 낼 사람이 있을까요? 홍식이는 모듬 앞에 나가 마치 발레하듯이 나비 모양을 그려 냅니다.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듯한 모습을 펼쳤다가 다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서 나풀나풀 팔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다 한 친구 옆에 살며시 기대며 포근한 모습을 보여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면서 이 춤통이가 생각해도 멋지게 표현합니다. 나비는 바로 이런 자태를 하고 있다는 듯 홍식이의 나비흉내가 끝나고, 우리 모듬은 ‘나비춤’에 대해 배웁니다.



나비춤은 향나비, 오행나비, 쌍나비 등의 춤으로 나누어지는데 춤의 형태는 거의 비슷하며 나비같은 의상을 입고 고깔을 쓰고 모란꽃을 양손에 들고 추는 춤입니다. 이 춤은 나비모양의 의상을 입고 빠른 동작이 아닌 매우 완만하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조용히 어깨나 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추는 것으로 흔히 혼자 또는 두사람이 춥니다. 느린 한배로 추는 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춤을 추어야 하며, 남자스님(비구)보다는 여자스님(비구니)들이 추는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비춤의 흥미로운 동작 몇가지를 배웁니다. 어느 정도 동작을 알게 되자 흥식이는 투덜거립니다. “우리춤은 정적인 동작이 많은데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듬은 호랑나비춤을 섞은 흥식이 덕분에 인기상으로 선정되어 예쁜 나비모양이 새겨진 수건을 하나씩 기념품으로 받습니다.

도움자료

□ 나비춤의 기본 춤사위

○ 험족배례(險足拜禮)〈靜·重〉

부처님께 예배를 올릴 때에 발을 X자로 만들어 예배하는 것이다.

○ 배례착(拜禮捉)〈靜·重〉

배례착이란 예배를 한다는 뜻으로, 절을 할 때 앞가슴에서 한 손을 내려 땅에 붙이고 몸을 굽혀 엎드리는 것이다.

○ 선자선좌(宣者宣座)〈靜〉

선자선좌란 선량하게 배꿀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하고 일어난다는 뜻으로, 절을 하고 난 후 몸을 일으키는 것이다.

○ 합장착(合掌捉)〈靜·合〉

합장착이란 ① 동작에 일으킨 몸 그대로 두 손을 모아 붙이는 것이다. 한마음을 나타내는 의미이며 모은 손은 앞가슴에 붙인다. ② 일체만상이 없어지고 하나에서 공으로 돌아가라는 일념으로 정신을 집중하고 손을 모은 그대로 발뒤축에 중심을 두고 일어선다.

○ 험수신배례(險手身拜禮)〈靜·重·合〉

험수신배례는 몸도 손도 모두 예배한다는 뜻이다. 똑바로 일어난 몸을 다시 허리를 굽혀 반절을 하는데, 앞가슴에 붙인 합장한 손을

약간 떼어 앞쪽으로 내밀다가 몸을 일으키면서 다시 가슴에 붙인다.

○ 팔수착(八手捉)〈靜·重·波〉

팔수착이란 두 팔을 여덟팔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약간 벌어진 상태이다.

○ 웅수배(滯手拜)〈靜〉

웅수배란 오므린다는 것으로, ① 동작에 위에 있는 두 팔을 오므려 들인다. ② 완전히 손을 모아 쥐고 팔을 아래로 내린다. ③ 마주쥔 손을 그대로 끌어내리면서 허리와 고개를 굽혀 앞으로 반절을 한다. ④ 허리와 고개를 굽혀 예배한 뒤 그대로 팔을 내려 두 손을 떨어지게 한다.

○ 험거수배(險擧手拜)〈靜·重·合〉

험거수배란 예하고 일어서는 팔을 말하는 것으로, ① 동작에 완전히 내린 손을 다시 잡으며 앞쪽으로 내릴 자세를 취한다. ② 몸을 완전히 일으켜 바로 서고 두 팔을 앞으로 모은 채 내린다. ③ 두 손을 모은 채 팔을 점점 들어올리면서 두 손을 안으로 오므린다. ④ 모아진 손을 서로 덮으며 두 팔은 어깨 가까이까지 들어올려서 벌린다.

○ 비나비상(菲나比想)〈靜·平〉

① 어깨까지 올라간 팔을 양쪽으로 벌릴 자세를 취한다. ② 두 팔을 들어올린 채 옆으로 활짝 펴고 고개도 바로잡으며 몸도 바로잡아 정중한 자세를 취한다. 비나비상이란 나비를 상상하여,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내음이 나는 고장이 바로 여기 이 자리이니 천상천하 모든 신들은 모여서 부처님께 법을 배우라는 의미가 있다.

○ 굽힘깨끼(靜·重·屈)

굽힘깨끼란 무릎을 굽히고 팔을 꺾는다는 뜻으로 ① 동작에 왼손을 높이 들어 팔목을 꺾고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한다. ② 무릎을 더 구부리면서 오른손을 올려 꺾고 왼손은 펴서 든다.

○ 좌나래상(佐나래想)〈靜·波〉

① 두 팔을 펴서 무릎을 천천히 굽혀가며 한 팔을 올리면서 다른 한 팔은 약간 내린다. ② 양쪽으로 이리저리 기울여가며 앉은 자세

로 내려가되, 다 앉았을 경우 한 발 뒤축이 들어올려져 엉덩이를 받친다. ③ 다시 이리저리 기울이며 팔을 한쪽씩 번갈아 출렁이면서 서서히 일어난다.

○ 참전착(參傳捉)〈靜·平·連〉

참전착은 쌍나비의 경우 서로 위치를 바꿀 때 하는 동작으로, ① 동작에 오른발을 뒤축부터 내딛어 다음 발을 모은다. 이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려 상대방쪽으로 향한다. ② 반대발이 나갔을 때는 상대방 가까이 온 것을 인식하고 고개를 약간 돌리며 등을 향할 준비를 한다. ③ 발이 나가면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지며 몸을 다시 바로 잡을 준비를 하는 것이 된다.

○ 비정전(比呈傳)〈靜·回·連〉

비정전이란 받치고 올려서 돈다는 뜻으로, ① 동작에 발을 들어올리면서 옆으로 꼬아 돈다. ② 끌어올린 발을 꼬아 던고 돌아갈 자세를 한다. 이때 꼬아 던은 발을 약간 숙인다. ③ 굽힌 무릎을 펴면서 돌고난 후 다음 발을 들어올릴 준비를 한다. ④ 다음 발을 들어 꼬아 든 발을 앞에다 옮겨 던고 나면 몸이 따라 돌아간다. ⑤ 옮겨 던은 발에 중심을 주고 다음 발의 뒤축부터 들어 옮길 자세를 한다. 그러면서 조금씩 돌아간다. ⑥ 뒤축을 든 발은 중심쪽 발에 붙이고 팔자를 만들면서 돌아가 완전히 뒷모습이 된다.

○ 정족착(丁足捉)〈靜·重·連〉

정족착은 발이 곰배 정자가 된 것을 말하며, 춤동작이 달라질 때나 끝날 때의 준비동작에 많이 쓰인다.

○ 팔합족착(八合簇捉)〈靜·平〉

팔합족착은 발을 팔자로 만든다는 것인데, 동작이 끝나고 다음 동작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팔을 만든 다음에 동작을 시작한다.

○ 앙수선자(昂手宣者)〈靜〉

앙수선자란 모든 것을 자비로써 베푼다는 것으로, 오른쪽 팔을 왼쪽으로 끌어다 모아 쥐어 베푼을 표시한다. 반대로 왼쪽 팔을 오른쪽에 끌어 모아 쥐기도 한다. 몸과 고개는 팔의 반대방향으로 돌린다.

○ 중동서남북 오방신선(中東西南北 五方神宣)〈靜·重·波·連〉
오방신선이란 동서남북 중앙 등의 모든 신들을 향해서 선량한 마음으로 예하는 것이다. 동에는 청색신, 남에는 적색신, 서에는 백색신, 북에는 흑색신, 중앙에는 황색신을 상징하는 것이 되며 꽃향기를 풍긴다고 말한다. 이 신들이 모여 부처님의 넓고 깊은 뜻을 배워 지은 죄를 참회하고 몸을 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좌수선거전(佐手宣擧傳)〈靜·平〉

① 동작에 오른쪽 팔을 들고 왼쪽 팔을 내렸을 때 좌수선거전이라고 하고, 왼쪽 팔을 들고 오른쪽 팔을 내렸을 때 우수선거전이라고 한다.

② 오른쪽 팔을 들고 왼쪽 팔을 내려 몸을 감고 옆으로 세번 걸어간다. 상대가 있을 경우에 방해되지 않고 좁지 않도록 넓게 걸어간다.

○ 좌우선거수(佐右宣擧手)〈靜·平〉

좌우선거수란 두 팔을 천천히 들어올린다는 것을 뜻하는데, 나비춤의 경우는 거의 없다. 언제든지 응수, 염수 등으로 두 손을 모아 아주 조용히 들어올린다.

○ 사수신착(沙手身捉)〈靜·平·回〉

① 왼발을 앞으로 딛고 살짝 옆으로 돌아, ② 위치를 바꾼다. 복잡하고 고달픈 우리 인간세계를 이룸하여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삼천이나 된다는 그 많은 세계 중의 하나가 인간세계이다. 손, 마음, 몸, 발의 모든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복잡함을 없애는 것이 바로 인간세계에서의 해탈이라 한다. 그리하여 꿈틀거리는 만가지의 생각을 씻어 버리고 해탈의 길을 찾아서 조용히 그리고 참신한 마음으로 지켜 선다.

활동 4 덩실덩실 신나는 몸짓, 탈춤

활동내용

▷ 탈춤의 사회적 기능 및 자신이 알고 있는 탈춤의 의의 등에 대해서 토론한다.

- ▷ 탈춤의 종류 중 하나를 선정하여 기본동작과 춤사위를 익힌다.
- ▷ 각자 탈춤에서 한 역할을 맡아 춤동작과 함께 연기한다.
- ▷ 하나의 과정이 끝난 후 바꾸어 역할을 한다.
- ▷ 다 함께 탈춤을 춘 후, 서로의 연기를 평가하고 느낌을 나눈다.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워크샷 ☒ 역할연기



춤통이의 도움활동

탈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우식이가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탈춤은 가면극입니다. 가면은 사람을 온폐시켜 줍니다.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람은 가면을 씌으로써 실제 자기내면의 세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못하던 이야기나 할 수 없는 말을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극인 탈춤은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신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탈춤을 통해 억눌려 있던 감정을 시원하게 드러냅니다. 따라서 탈춤은 사회적으로 볼 때 억압된 개인 및 현실에서 쉽게 용납되지 못하는 생각이나 이념 그리고 갈등을 춤을 통해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멋진 저항의 예술입니다.” 이렇게 우식이의 말이 끝나자 친구들은 “와—”하고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언제부터 우식이가 그렇게 사회의식이

있고 탈춤에 조예가 깊었는지 놀라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자 우식이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 말이 맞지는 책임을 못 집니다.” 여하튼 그렇게 우리춤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우식이에게 춤통이인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 탈춤의 기본동작을 배웁니다. 불림사위1부터 까치걸음까지 12가지의 기본 춤사위를 하나씩 따라하고 난 후, 친구들은 저마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어깨가 쭈신다”고 한마디씩 하며 고개를 흔들니다. 무척 힘든 동작입니다.

우리는 봉산 탈춤을 선정합니다. 봉산 탈춤은 황해도 서쪽 즉 서해 일대에 분포된 탈춤 중의 하나입니다. 이 춤은 양주 별산대놀이와 거의 비슷하여 피리, 젓대, 북, 장구, 해금으로 구성된 이른바 삼현육각(三絃六角)으로 연주되는 염불, 타령, 굿거리곡에 맞추어 춤이 주가 되고 이에 동작과 재담 그리고 노래가 따르는 탈춤입니다. 춤은 활발하며 장삼소매를 휘어잡고 뿌리거나 한삼을 경쾌하게 휘뿌리면서 두 팔을 빠른 사위로 굽혔다 폈다 하는 깨끼춤이 기본입니다. 그동안 배운 탈춤의 기본형을 바탕으로 봉산 탈춤을 추면서 사자, 말뚝이, 상좌, 노장, 취발이, 양반 등이 되어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가며 정해진 대사없이 춤극을 합니다. 노장의 역할을 하던 홍식이는 취발이 역을 한 저 춤통이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는 “매에는 장사없다더니, 한동안 잘 나가던 청춘이 어떻게 꼬여 젊은이에게 농락당하고 그 기분 짐작할만 하더라”하며 신분의 가면이 아무 것도 아니고 덧없음을 느꼈다고 제법 어른다운 소리를 합니다. 여하튼 신명나게 한 판 놀고 서로 느끼고 나중에 어깨동무하며 “덩덩 덩더쿵 덩덩 덩더쿵...” 탈춤의 기본 춤사위를 반복하며 즐겁게 끝냅니다.

도움자료

□ 탈춤

◎ 탈춤의 종류

현존하는 대부분의 탈춤은 강릉 단오굿의 관노놀이이나 하회 별신굿 등과 같이 대륙 전래의 것 이전의 토착적인 탈춤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시형이다. 이들을 지방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일원의 산대놀이,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해서지방 탈춤, 그리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그 동쪽 부산 일원의 돌놀음과 서쪽 경남 일원의 오광대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다시 유형별로 구분하면 두레패적인 탈춤으로 강릉 단오굿의 관노놀음과 하회 별신굿, 북청 사자놀음 등의 농촌형 탈춤과 중부 지방의 양주 별산대놀이, 송파 산대놀이, 해서지방의 봉산 탈춤, 강령 탈춤, 은을 탈춤, 남부지방의 수령 돌놀음 그리고 오성 오광대나 통영 오광대, 가산 오광대 등의 도시형의 탈춤이 있다.

◎ 탈춤의 형태

지역별로 구분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중부형과 북쪽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해서지방의 탈춤인 해서형, 남쪽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경남형, 그리고 대륙 전래의 것 이전의 토착적인 곳에서 유래한 탈춤으로 분류된다.

○ 중부형

비교적 섬세한 맛이 있고 일정한 형식도 갖추었다. 경기도 사람다운 차분한 기질이 드러나며 궁중무의 영향을 받았다. 산대춤은 특히 몸짓의 연극적인 요소가 정형화되어 있고 손을 내놓고 추기 때문에 주로 손짓으로 된 춤사위가 많으며 매듭이 확실한 타령장단을 쓰므로 동작 하나하나가 매듭춤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해서형

북방계의 영향을 받아 한산의 휘돌림과 힘찬 도약무로 짜여져 있으며 다른 지방의 춤보다 폭이 커서 쾌활하고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듯한 전투무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춤사위는 봉산, 은을, 강령 등 세지방의 춤이 거의 같다.

○ 경남형

남부지방의 돌놀음이나 오광대춤을 현지인들은 덧뵈기춤, 또는 배김새춤이라고 한다. 이는 경남지방 탈춤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며 이는 어느 지점에다 온 몸을 힘차게 던져 멈추면서 정신적 긴장을 가져오게 하며 그것을 적절히 풀어가는 요령으로 이루어진다. 경남 지방의 탈춤은 다른 지방의 탈춤에 비해 춤사위의 명칭이나 동작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예능인의 춤보다 더 민중적인 춤이 성행한 증거라 할 수 있으며 농업연주형식으로 춤추기 때문에 흥이 있고 구수한 맛이 있다.

◎ 탈춤의 기능

사람이 탈을 쓰는 목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주술의 기능이다. 탈춤은 예능이기 이전에 주술 종교적인 행사로 치러졌던 것이다. 재앙이나 병을 가져오는 악신이나 역신을 쫓기 위해 그 보다 더 무서운 귀신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신앙에서 무서운 탈을 쓰고 종교 의식을 치른 것으로 추측된다. 이같이 잡귀를 몰아내고 복을 맞이하기 위해 놀던 벽사 탈춤은 지금도 경기도, 황해도, 제주도 등의 무당굿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지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마을 탈춤은 두레패적인 탈춤이다. 이 탈춤은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어 비전문적이나 대동놀이적인 성격이 짙다. 농경사회에서 풍년을 비는 집단적인 마을 굿에 기원을 두고 마을 행사의 하나로서 출발한 이 탈춤은 조선후기에 도시가 성립되자 농촌 탈춤에서 도시 탈춤으로 변모되거나 농악의 잡색놀이로 남게 되었다.

자료 : 김매자, 1990.

3. 유의사항

- ◎ 이 활동은 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는 체험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 ◎ 동물춤을 추는 활동에서는 우리의 전통춤에서 표현했던 방식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과 함께 창의적인 방식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표현을 고안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 함께 추는 춤을 출 때와 탈춤을 출 때는 활동과정을 거쳐서 그 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참 고

□ 춤의 사회적인 기능

우리의 춤, 특히 민속춤은 종교나 농경의례, 노동, 일상생활, 명절 등과 밀착된 관계를 가지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음의 세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생활적 기능

민속춤의 기능은 원초적으로 제의적인 마을굿과 풍년을 위한 농경의례로서의 축원적인 기능을 비롯하여 농경생활과 결부된 두레적 기능의 춤을 추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의 축제적인 기능과 오락과 예술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생활춤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 공동체적 기능

공동체적인 기능을 가진 춤은 농민들이 공동노동을 하면서 노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 추는 춤으로 농악이나 탈춤, 소리춤과 같은 춤은 원래는 종교적인 춤이었지만 이들 춤들이 민중의 문화로 토착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두레패나 서민들에 의해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종교적인 공동체, 같은 신분끼리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 저항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 표현적 기능

생활속에 겪는 온갖 고통과 갈등을 푸는 삶의 표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농악에 있어서 연예적 농악과 탈춤, 그리고 남녀의 소리춤과 난장판에서 추는 허튼 춤과 사람과 동물의 모방춤같은 것이 그러한 기능을 한다. 여기서 오락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에 도달함으로써 엉클어진 감정을 풀고 삶에 생기를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미적인 의식도 가지게 된다.

□ 민속춤의 주요 춤사위

민속춤은 궁중정재나 종교의식무용 그리고 예능무용인 고전무용에 비해 이론적인 요소가 많은 춤으로 전형화된 춤사위는 탈춤과 일부 농악에서 볼 수 있다.

◎ 거드름춤

거드름춤은 ‘거들먹 거린다’, ‘거드름 피운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느린 6박의 염불장단에 의해 몸 마디마디의 멋을 풀어감듯이 다져 가며 몸 깊이 스며있는 기를 찾아내는 종교성이 있는 몸짓으로 일종의 몸부림과 생명의 꿈틀거림으로 해석된다. 이 춤의 특징은 도무가 없이 주로 팔을 벌리고 느린 염불장단에 맞추어 사발울 향해 추는 것이며 춤사위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깨끼춤을 동반하게 된다. 또한 그 동작이 느릿하면서도 무겁고 발을 벌리고 장삼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고개잡이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동작이 주이며 뛰는 동작은 없고 무뎡이 큰 것도 거드름춤의 특징이다.

◎ 깨끼춤

깨끼춤은 산대놀이춤의 기본형인 것인데 반드시 4박 타령장단에 맞추어 춘다. 이 춤의 특징은 매듭매듭이 절도가 있으며 마치 무사가 적을 방위하거나 격파하는 듯한 무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춤은 그 움직임이 손을 내놓고 추는 것이기 때문에 손짓동작으로 된 춤사위가 많으며 춤동작의 매듭이 확실하고 섬세하며 무뎡이 작고 간사스럽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 사위춤

해서지방의 탈춤인 봉산탈춤에 있어서 본격적인 춤은 팔목중들이 추는 사위춤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위춤은 손에 한삼을 끼고 추르고 무뎡이 크고 춤사위에 절도가 있고 도무가 많으며 힘찬 한삼의 휘돌림으로 성난 무사들의 전투행위와도 같다.

◎ 덧배기춤

남부지방의 탈춤인 오광대와 야유의 춤에서 가장 개성있는 춤은 이른바 덧배기춤이다. 덧배기춤의 춤사위에는 ‘어름새’ ‘배김새’ ‘풀음새’가 있는데 이 덧배기춤은 일설에 의하면 덧의 의미와 역신 또는

사신이 붙어 들어옴을 ‘배어버리다’라는 뜻의 배기와 합한 뜻으로 탈춤 춤사위의 원의(原意)로 해석되기도 한다. 덧배기춤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춤사위는 배검을 하는 것인데 이 동작은 야유계인 동래나 수영, 오광대계의 고성이나 통영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정신을 한 곳으로 모아 감정을 맺는 가운데 어느 지점에 다 무겁고 강한 행동으로 뛰어내려 정지하는 동작이다.

◎ 농악

농악의 주된 춤사위는 쇄꾼의 부포놀이와 소고잡이의 상모놀이 등 율놀이사위와 장구, 북, 소고잡이들이 추는 밑놀이사위로 구분된다. 율놀이의 주된 춤사위는 쇄꾼춤의 외사위, 양사, 사사, 퍼넘기기, 그리고 피꼬리 상모 등이며 소고잡이의 채상모춤은 외사와 양사, 치고 앉는 상, 연풍대와 자반뛰기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부포놀이와 채상모놀이의 공통점은 고개놀이를 위주로 한 것이며 그 고개놀이는 종교적 주술과 군사적인 신호 또는 성모의나 꽃, 새 등을 모방한 데서 나온 것이며 그 움직임은 원과 나선형의 모양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치고 앉는 상’이라든가 자반뛰기와 같은 춤사위는 마치 용맹스러운 군마의 움직임이나 무술적 행위와 같이 그 움직임이 전투적이고 거친 것이 특징이다.

자료 : 정병호, 1992.

우리 춤 새모듬 찾기



함께 떠나는 답사여행
말이 아니어도
마음속의 여백찾기
자유, 그 끝없는 나래짓

1. 활동과정

개요	우리의 정서가 어떻게 춤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탐색작업을 통해 발견하고 새롭게 우리춤을 표현한다.			
활동과정	특정지역의 대표적 춤에 대해 조사하고, 특색있는 춤을 발굴하고 자료수집을 한다.	대화를 우리춤으로 표현하고, 의사가 잘 전달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춤을 주는 의미와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창작춤으로 표현한다.

2. 활동내용

활동 1 함께 떠나는 답사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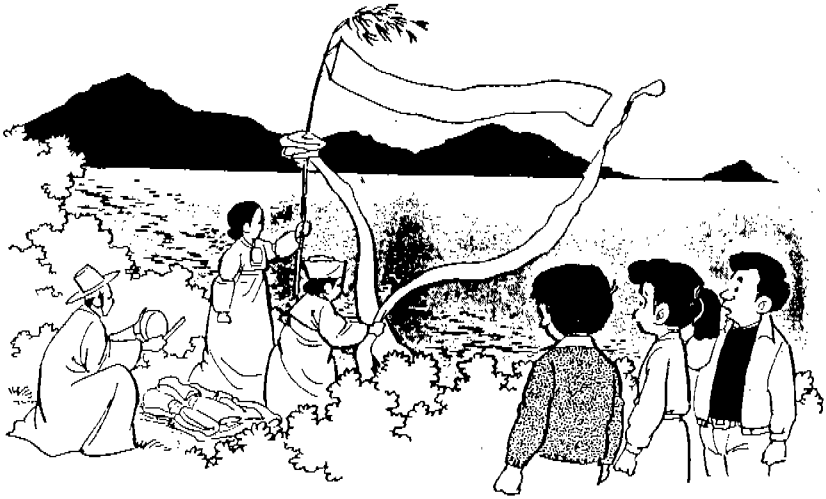
활동내용	▷ 한 지역을 선정 한 후, 그 지역의 특징적인 춤의 종류와 형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 대상지역을 방문하여 우리춤의 계승 및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 알려진 우리춤 이외의 특색있는 춤을 파악한다. ▷ 특색있는 춤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활동방법	☐ 구안법 ☒ 토론 ☐ 공개토론 ☒ 현지답사			

홍식이와 춤통이 그리고 진실이와 현우, 우식이까지 모여 우리춤의 생생한 현장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우리춤의 살아있는 진한 멋과 맛을 보고 느낄 수 있을까하는 고민 끝에 우리는 진도로 춤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방향을 정합니다. 진도는 강강술래로도 유명하지만 흔히 알듯이 씻김굿이 잘 보존되어 온 지역입니다. 씻김굿은 죽은 사람을 위한 굿으로 이승에서 풀지 못한 죽은 영혼의 한을 풀어서 편안히 극락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굿입니다. 씻김이란 광안의 신체모형을 만들어 무(巫)가 씻기는 것인데, 이것은 사망한지 얼마 안되는 영혼에는 사세(死勢)가 강하다고 하는 원시적 관념에서 생겨난 의례로서 불교적 습합성이 다분합니다.

우리는 진도로 향합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전라남도 광주로 갑니다. 그 곳에서 진도행 시외버스를 탑니다. 광주에서 진도까지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며, 목포에서도 진도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진도에는 이순신장군이 왜군을 수장시킨 울돌목 해협과 추사 김정희의 제자인 소치선생이 남화의 맥을 키워 낸 운림산방과 쌍계사, 그리고 신비의 바닷길로 알려진 회동마을 등 볼거리와 문화유적이 많습니다.

진도로 간 우리는 오일리에 살고 있는 무속인을 만나 씻김굿을 생생하게 봅니다. 이 진도 씻김굿은 우리나라 남부 해안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세습무 중 가장 세련되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출상(出喪)을 앞두고 관 앞에서 하는 곱머리 씻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탈상날을 받아하는 날받이 씻김, 초분을 했다가 장지로 옮길 때 하는 초분이장 씻김, 물에 빠진 냇을 건져서 천도하는 냇건지기 씻김, 처녀나 총각으로 죽은 영혼을 혼인시켜 주는 저승혼사 굿 등 죽음의 장소나 유형에 따라 여러 종류입니다.

우리는 씻김굿의 현장도 보고 무속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분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목포에서 싱싱한 회를 한 접시 맛있게 먹고 좋은 추억을 남기며 돌아옵니다.



도움자료

□ 진도 씻김굿의 제의 절차

씻김굿은 호남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망자를 위한 굿으로 이승에서 풀지 못하고 죽은 영혼에게 맺혀있는 한을 풀어서 극락왕생하도록 축원하는 굿이지만, 굿을 행하는 장소와 시일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 안땅

대청마루에서 여러 조상들에게 오늘 누구를 위한 굿을 한다고 알리는 굿으로 굿을 행할 때는 징, 팽파리, 장구를 두들기고 피리, 아쟁이 곁들여진다. 여기서 여러 조상들이 오셔서 즐겨주시기를 원하여 성주께 알리는 안땅 춤이 곁들여진다.

◎ 초가망석

이 굿은 초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씻김을 하는 망자를 비롯하여 상을 차려 놓은 조상이나 생시에 친구였다가 망자가 된 영혼들을 불러 들이는 대목으로 지적춤과 신대를 가지고 추는 춤이다.

◎ 손님굿

이 굿은 옛날에 가장 무서운 병인 마마신을 불러서 대접하고 또 망자가 이승에서 친하던 친구들의 영혼을 불러서 즐겁게 해주는 내용이다.

◎ 제석굿

이 굿은 어느 유형의 굿에서나 모두 행해지는 것으로서 진도 씻김굿에서 중요한 굿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불교적인 농도가 짙은 지전춤, 복개춤, 정주춤, 입춤 등이 추가된다.

◎ 고틀이

이승에서 잊지 못한 채 저승으로 간 원한을 의미하는 ‘고’를 차일의 기둥에 묶어 놓았다가 이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영혼을 달래주는 대목굿이다. 이 고틀이에서는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지전춤과 고틀이춤이 있다.

◎ 영돈말이

시신을 뜻하는 영돈을 마는 대목이다. 굿을 시작할 때 망자의 옷을 만들어 병풍 위에 걸어 놓는데 이 옷을 내려서 살아 있는 사람이 입을 때와 같이 돗자리나 가마니위에 펼쳐놓고 이를 돌돌 말아 일곱 매듭을 묶어 세운다. 그리고 그 위에 술을 만드는 누룩을 놓고 다시 그 위에 사람모양으로 오린 냇을 돗쇠주발 속에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그 위에 술뚜껑을 덮는다. 이 때 기혼자의 경우에는 술뚜껑을 덮으나 미혼자의 경우는 바가지로 씌운다.

◎ 이슬털기

씻김굿의 주요대목으로 ‘씻김’이라고도 한다. 이슬털기란 마르고 깨끗해야 환생할 수 있는데, 원한이 이슬되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를 씻겨주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세워놓은 영돈을 쓱을 담은 쓱물, 향을 담은 향물과 청계수 순서로 빗자리에다 묻히어 머리로부터 아래로 씻겨간다. 이 굿에서는 망자의 혼을 씻겨주는 모의적 지전춤과 명주 천을 가르는 가진춤, 그리고 신칼춤 등이 행해진다.

◎ 오구물림

◎ 동갑풀이

이승에 같이 태어났던 동갑들은 아직도 살아 있는데 자기만이 죽어 억울한 원한의 뉘두리를 풀어주는 곳거리이다.

◎ 약풀이

망자가 먹으면 살았을 약들이 이승에 많았는데도 그 약을 못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한을 풀어주는 곳거리이다.

◎ 천근풀이

◎ 뉘올리기

씻김굿을 하는 가주의 머리에다 뉘을 올려놓고 망자의 맺힌 한이 풀어졌는가를 보는 곳거리이다.

◎ 손대잡이

소쿠리에다 쌀을 담아 놓고 그 위에 대를 세워 놓은 것을 ‘손대’라 하는데, 망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이 손대를 잡고 있으면 망자의 혼이 내려 이승에 맺혔던 원한을 모두 이야기한다.

◎ 회설

저승의 육갑(六甲)을 풀어주는 거리로서, 이 때는 당골 혼자 말로만 한다.

◎ 길뉘음

이승에서의 모든 한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믿고 극락으로 가는 길을 깨끗이 닦아주는 대목이다.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모의적인 의식무인 지전춤과 뉘당상으로 춤을 추기도 한다.

◎ 종천

마지막 거리로서 대문밖 길에서 굿할 때 태워야 할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나와 불사르면서 당골 혼자 징을 두들기면서 배송하는 대목이다. 이제 모든 원한을 다 풀어 주었으니 부디 극락왕생하고 가시는 길이 평안하도록 기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자료 : 송수남, 1988.

활동 2 말이 아니어도

활동내용

- ▷ 상대방의 대사를 알 수 없는 반쪽 대본의 대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춤으로 표현한다.
- ▷ 대본을 보고 춤을 추는 상대방의 춤을 글로 적는다.
- ▷ 대화를 모두 마친 후, 서로의 대본을 비교하여 얼마나 정확한지 살핀다.
- ▷ 잘 맞춘 사람을 뽑아 서로의 생각을 춤으로 대화하고 얼마나 정확했는지 평가한다.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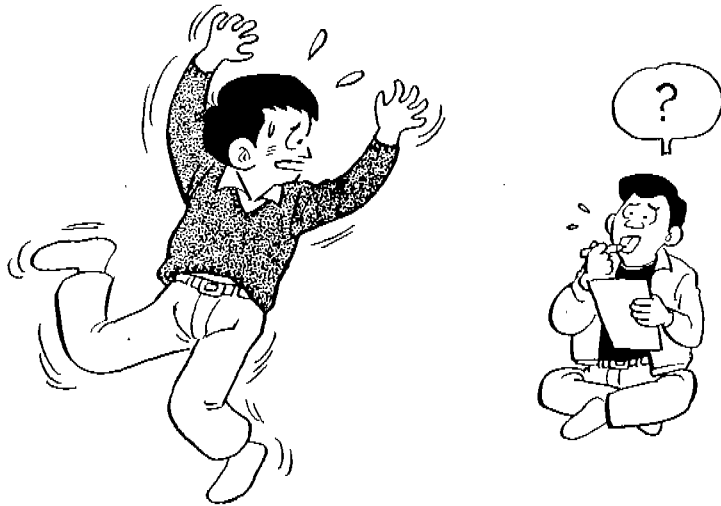
☒ 시청각 ☐ 토론 ☒ 공개토론 ☐ 역할연기

춤통이의 도움활동

이번 시간은 춤으로써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저 춤통이는 홍식이와 짝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빠져 있는 대본을 들고 춤통이는 홍식이의 춤을 보고 빠진 부분이 무슨 말인지 적어야 합니다. 홍식이는 자기의 대사를 비교적 잘 표현하고 자연스러운데 춤통이는 자꾸 춤의 요소가 있는 표현이 아닌 수화가 되고 손짓 발짓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사 중 “아주 표현이 멋진데, 나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 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하는 건데, 너는 혹시 춤을 배운 적 있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홍식이는 그 특유의 발놀림으로 멋지게 한바퀴 돌더니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사뿐이 걸어가는 표정을 집니다. 그러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우리춤 흥내를 내다가 춤통이에게 다가와서 따라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법 야단치는 시늉을 합니다.

그런데 춤통이는 표정이 우습게 되고 손가락을 내밀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결국 춤통이와 홍식이는 대본의 연기를 다 한 다음, 맞추어본 결과 춤통이가 쓴 내용이 홍식이의 대본과 꽤 많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홍식이는 다음 단계에 진출합니다. 이어서 우식이와 홍식이가 대본없이 대화를 합니다. 참 옆에서 지켜보니 웃음이 나오다가



도 둘의 진지함에 빨려들어가고, 여하튼 무척 열심히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말을 못해 꽤 답답할텐데 적지 않은 시간을 잘 참고 행동하는 홍식이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호감이 갑니다. 시간이 되어 서로의 표현내용을 설명한 결과 홍식이가 우식이 보다 좀 더 춤으로 표현을 잘했습니다. 어렵지만 여러가지로 의미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자료

□ 춤 표현 대본의 예

가 : 일요일이던 어제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을 단풍이 참 아름답더라. 너는 무엇하고 지냈니?

나 : 응, 나는 하루종일 텔레비전을 보았어.

가 :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었니?

나 : 식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책도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아 별로 기억나는 건 없지만, ‘우리의 아름다움’이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폭포가 시원하게 떨어지는 깊은 산골에서 하얀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단아하게 춤을 추는데 너무 인상적이더라.

가 : 그래 우리춤은 마음으로 느끼는 면이 더 많은 것 같애, 너는 우리춤 공연하는 데 가본 적 있니?

나 : 아니,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생각해 보면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애. 내 마음이.

가 : 그전 선입견이야. 나는 저번에 한 번 가보았는데 참 근사하더라. 아마 승무였을거야. 완전히 조지훈님의 승무라는 시와 똑같이 춤을 추더라.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나 : 아주 표현이 멋진데, 나도 한번 가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 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너는 혹시 춤을 배운 적 있니?

가 : 어릴 때 고전 무용을 좀 배웠어. 부채춤이나 꼭두각시춤 같은 거.

나 : 야. 그래도 그게 어디냐, 나도 춤을 한 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나는 현대식 우리춤이 좋더라. 언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전통창작무용제같은 행사에 가보자.

가 : 그래, 내가 한 번 알아볼께. 이제 그만 들어가자. 날이 점점 쌀쌀해진다. 몇 개 안 남은 낙엽이 자꾸 마음을 스산하게 하는 것 같애. 안녕.

나 : 조심해 들어가. 또 보자.

활동 3 마음속의 여백찾기

활동내용

- ▷ 우리춤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한다.
- ▷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하나 제시한다.
- ▷ 제시된 글에 따라 춤으로 표현한다.
- ▷ 각자 자기 춤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평가한다.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강의 ☐ 구안법 ☒ 워크샷

춤통이는 우리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과 사상을 밑거름으로 하고 있는 춤은 우리 노래와 극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안으로 안으로 삼키는 우리춤은 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한 한(恨)을 표현한다고도 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을 내뿔거나 스스로 움추려드는 것이 아니라 한을 풀고 다시 맺고하는 긴장과 이완의 힘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삶의 끈질긴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고 자연스러운 생활의 형태와 극한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한줄기 여유를 줍니다. 또한 자연과 하나되어 삶을 달관하는 자세를 가져옵니다. 발걸음 하나 버선코 모양과 방향 하나에 응축된 정신의 힘이 녹아져 표현됩니다. 이렇듯 우리춤은 우리 마음과 생활의 참 모습을 보다 높은 정신세계로 이끄는 수단이자 목적입니다.

춤통이는 같은 모듬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 현대 단편소설의 미학적 정수라고 하는 이효석님의 「메밀꽃 필 무렵」의 가장 뛰어난 상황 묘사 장면을 춤으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어렵게 하얀 옷을 준비한 춤통이는 부드러운 빛을 받으며 움직이는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고개를 숙입니다. 몇 걸음 옮기던 춤통



이는 사뿐이 몸을 추스린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나의 점을 응시하는 듯한 표정을 나타냅니다. 순간 나머지 친구들이 옆에서 나와 춤통이를 에워싸며 서있다가 서서히 물러서며 사각사각 신발로 바닥을 비비고 조그맣게 때로는 조금 크게 “우—”하는 소리를 냅니다. 잠시 후 친구들이 사라지고 가만히 있던 춤통이는 양 팔을 하늘 높이 뻗어 둥글게 원을 그리며 고개를 쳐들고 환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 다음 모두 다시 모여 상의를 벗고 씩씩하게 걸으며 웃습니다.

춤통이는 자기의 역할에 대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두 가지 점에서 초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하나는 달을 중심으로 주위의 멋드러진 그렇지만 웬지 조심스러운 상황과 그 속에서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주인공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황에 숙연한 주인공의 마음과 마음이 변화됨으로 느끼는 주위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춤썩지도 않고 감성도 둔해 설명이 어려워만 졌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의 친구들이 박수를 칩니다. 특히 홍식은 옆에 다가와서 언제 그런 정서와 표현능력이 있었느냐고 물으며 감탄을 합니다. 힘들지만 보람있는 시간입니다.

도움자료

□ 춤으로 표현하는 글, 하나

누런 벼이삭의 물결 위에 서있는 흐드러진 육자배기 가락. 끝없이 펼쳐진 남도의 별판은 배고파도 배부른 포만감과 조용한 허허로움을 함께 준다.

불어오는 바람 맞으며 낮은 둔덕 베개삼아 높은 하늘 덮고 나면, 목장단 맞추어 불어오는 삼삼하게 춤추는 노래가락들이여. 그 전라도의 끝없이 풍성한 인심을 찾으러 나서는 이들은?

□ 춤으로 표현하는 글, 둘

이지러지기는 했지만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홀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팔십리의 밤 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 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떨어졌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공이 향기같이 애장하고 나귀의 걸음도 시원하다(이효석님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

활동 4 자유, 그 끝없는 나래짓

활동내용

- ▷ 제시된 몇 개의 주제어 중 하나를 선택한다.
- ▷ 선택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춤을 창작한다.
- ▷ 창작한 춤을 스스로 춘다.
- ▷ 가장 우수한 창작 춤을 뽑아 ‘창작상’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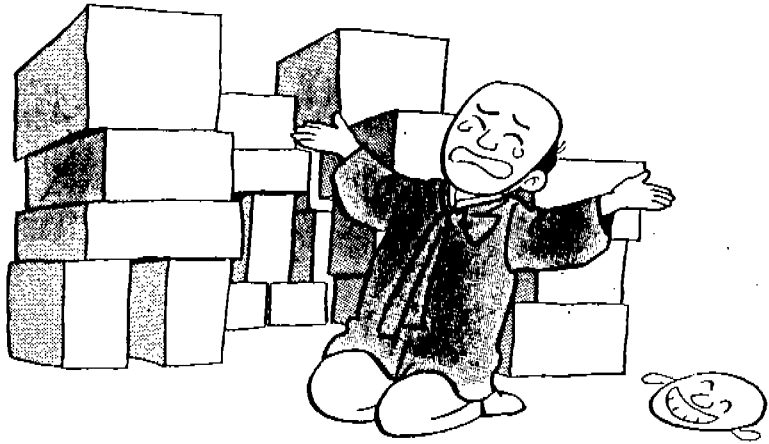
활동방법

___ 워크샷 ☒ 게시 및 전시 ☒ 역할연기 ___ 구안법

춤통이의 도움활동

주제어 목록으로 ‘꽃, 사랑, 아름다움, 희망, 예술, 인생, 예의, 이별, 고독’과 같은 것들이 제시됩니다.

춤통이는 ‘인생’이란 주제어를 선택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택하냐고 물으시면,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 나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이고, 많은 괴로움을 ‘인생’, 즉 삶 때문에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주제로 우리의 창작 춤을 추려면 춤을 추기위한 기본 구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어떤 눈으로 ‘인생’을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춤통이는 ‘인생’을 ‘달혀 있는 골목길’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은 죽음을 안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같지만 사실상 기웃거리듯이 우리는 하루 하루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면서 또 어떤 것에 기대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결국 돌아옵니다.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신체와 환경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을 열어놓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춤의 제목으로 ‘인생’을 정합니다.

○ 제목 : 인생, 닫혀있는 골목길의 출구를 찾아

○ 준비 : 다섯개의 종이가면(웃는 모습, 우는 모습, 찌증난 모습, 화난 모습, 기쁜 모습), 빈 상자 여러 개, 기름, 가야금 및 거문고 산조 중심의 음악

○ 상황 : 상자를 여러 개 쌓고 상자 틈사이로 여러 개의 막다른 길을 만든다. 그리고 큰 상자를 준비하여 그 속에 주인공이 들어간다. 거문고 산조 중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음악이 흐르고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한다. 그러다 갑자기 밝아지면서 상자 속에서 주인공이 나온다.

○ 내용 : 가면을 쓰지 않고 나타난 주인공은 옆에 놓인 가면 다섯 개를 모두 쓴다. 그리고 한 골목으로 들어선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주인공은 앞에 있는 벽(상자)을 넘으려 하지만 기름으로 가득한 손 때문에 번번히 미끄러지고 만다. 웃는 모습의 가면을 하고 한바탕 신명나는 빠른 장단과 몸놀림의 춤을 추며 다시 벽을 넘어본다. 다시 실패하자 가면을 하나 벗는다. 우는 모습을 하고 고개를 깊숙히 숙이며 미끄러지듯이 다음 골목으로 들어간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다가 막다른 길이 나오자 우는 모습의 가면을 벗고 짜증난 모습으로 벽을 넘으려고 한다.

자꾸 미끄러지자 가면을 하나 더 벗어 화난 모습으로 변한다. 그곳에서 울분의 춤을 춘다. 자기 몸을 자학하고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는 등 거친 춤사위를 보인다. 그러나 지친 모습으로 눕는다. 잠시 후, 일어나 이 골목 저 골목을 다시 기웃거린다. 그러다가 골목의 가운데 주저 앉는다. 하늘의 정기를 받듯이 고개를 들어 위를 본 주인공은 두 손을 모으고 잠시 생각에 잠긴 손을 뻗어 바닥에 얹으려 한다. 그리고 조용히 흐느끼다가 갑자기 가면을 벗어 기쁜 모습으로 일어난다. “아—”하는 탄성과 함께 마지막 가면마저 벗고 해탈의 춤을 추다가 무릎을 꿇어 두 손을 가슴에 대며 천천히 일어난다.

저 춤통이는 창작 무용을 조심스럽게 발표합니다. 가능하면 춤보다는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씁니다. 별로 긴장한 것 같지 않았는데 발표를 마치고 나니 온 몸이 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춤의 기술적인 능력과 표현은 떨어지지만 열심히 했으며, 구성과 내용이 창의적이었다고 귀한 상을 받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춤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춤통이가 되라는 상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춤통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춤의 의미와 내용을 배울 때입니다. 저 춤통이는 각오가 되어 있는 걸요.

3. 유의사항

- ◎ 이 활동은 우리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우리춤을 통해서 우리의 고유한 민족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 각자 자신이 발견한 우리춤의 독특한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하고 느낌을 자연스럽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춤 익히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4. 참 고

□ 무속무용

곳은 원시시대 곧 기원전 3, 4세기경부터 자연발생하여 독특한 종합예술의 형태를 지녀왔다. 이 의식은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발상이 되었던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술(의상), 문학(무가), 음악(창), 춤 등으로 분화되어 발전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곳은 각 도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다. 동해안 일대에서는 ‘별신굿’, 서울을 비롯한 경기지방에서는 ‘도당굿’과 ‘대동굿’, 제주도 지방에서는 ‘당굿’, 전라도 일원에서는 ‘씻김굿’, 충청도 지방에서는 ‘양반굿’ 등으로 크게 나눈다. 이들 굿을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세습무로 가무(歌舞)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민족은 원시시대부터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신앙은 자연숭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대자연의 신비스러운 변화에 경령이 있다고 생각하여 일월성신이나 기암대수에 공물과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재화의 퇴치나 안심과 환희의 생활을 구하기 위한 것이 무속 신앙의 기원이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무속무용은 그 지방에 따라 복식, 진행과정, 춤사위 등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무속의식의 집행절차는 주로 언어의 표출과 행동의 표출방법이 복

합된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언어의 표출이란 가락의 형식을 통한 사실과 덕담을 말하는 것이고 행동의 표출이란 연극적 행동을 포함한 무용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무속의식에서 무용은 한거리마다 가창의 보조 수단으로 추는 경우와 그와는 반대로 악의 반주를 보조 받아 춤추는 표출방법이 있다.

무속의식에서 무용의 기능은 순수한 예술적 감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따른 실리적이고 공리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주로 신을 부르고 맞는 것이 주목적이 있으나 송신을 위해 추기도 하고 부정을 풀어주거나 선신을 즐겁게 하고 악신을 격파하는 전투적 행위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춤들은 특정한 목적의 의식을 시작하거나 종결시켜 주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경기도

복식자체가 화려할 뿐 아니라 관복을 많이 모방하였다. 춤의 동작은 다양하게 전개되며 서당굿 같은 것은 좌우로 활달하게 움직이는 문관의 흉내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산신굿은 도악을 주로 하며 전진과 후진을 되풀이하고 무관의 용력이 악동하는 춤으로 보이다가도 제석굿으로 접어들어서는 동작 하나하나가 민첩하면서 섬세하게 진행되는가 하면 창부 거리에서는 매우 세련된 춤에 다양한 선을 그린다. 또 불사굿은 홍색 치마에 가사를 걸치고 고깔을 쓰고 방울을 흔들면서 춤추고 부채를 퍼들면서 전개되는 제석염불에서는 불교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경상도

경상도의 무속은 경기도에 비해 무복도 화려하지 않고 춤 그 자체도 경기도처럼 절도 있고 세련되지도 못한 한마디로 말해 자유형이라 할 수 있으나 음악의 장단은 다양한 편으로 복잡하게 전개된다. 춤 자체가 신을 즐겁게 하고 또 강신하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춤의 길어도 일정하지 않다.

별신굿은 불교적인 요소가 다른 지방에 비해 짙은 편이다. 활옷과 고깔을 쓴 무녀의 빠른 움직임으로 무언극이 시작되고 노승이 부채를 쥐고 자다가 긴 하품을 하며 이를 잡는 시늉, 활옷 띠를 가지고 짚신을 삼은 시늉 등을 무언극으로 엮어간다. 이 곳은 빠른 춤의

춤사위로 엮여지며 사이사이 극이 해학적으로 진행된다. 끝 장면에서는 48각의 탐등을 돌고 춤을 추다가 긴 등노래의 무가를 부른다. 불교의 교리에 대한 찬미성도 다소 내포되어 있으나 승려의 타락과 비행을 풍자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춤사위는 때에 따라 경기도 춤에 비해 거친 데가 없지 않은데, 이러한 것은 흥 위주나 아름다움의 추구보다 조상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기 위한 춤으로 한국 무속 무용의 공통된 점이라 볼 수 있다.

◎ 전라도

호남지방의 씻김굿은 죽은 이의 넋을 깨끗히 씻겨서 극락으로 보낸다는 의미를 가진 일종의 위령제이다. 망자가 죽은 해안에서 하는 굿을 ‘진 씻김굿’이라 하고 해를 넘기거나 수년 만에 하는 굿을 ‘마른 씻김굿’이라 한다. 전남의 무는 강신무보다 사제자로서 일관하여 경기지방의 굿처럼 신들린 무아의 도취상태가 없고 세찬 비무(飛舞)도 없으며 선회도 없다. 무의(舞衣)도 경기지방처럼 화려하지 않고 깨끗한 평복으로 가무사제를 한다. 춤 또한 움직임이 다른 지방에 비해 적은 편이며 간간히 섞여 있을 뿐이다.

자료 : 김매자, 1990.

□ 우리춤의 심성과 의식

민속춤을 중심으로 표현되었던 우리민족의 선천적인 심성과 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한과 정과 환희의 미의식

춤꾼이 감정을 담아서 추는 춤을 ‘한을 잘 담아서 춘다’고 하거나 ‘춤에는 한이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춤에서 ‘한’은 감정을 표출하는 말로 쓰인다. 춤에서 한은 소리춤의 경우에는 가사의 내용에 담겨져 있고 허튼춤, 살풀이, 승무와 같은 춤에서는 그 표정으로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춤들을 보고 있으면 이 춤이 한으로 머물지 않고 다정다감한 표현과 환희가 넘쳐 흐르는 춤으로 발전하는 것을 본다.

◎ 신명의 심성

신명의 춤은 무속과 관련된 제의에서 추어지는데, 무당들이 행한 무당굿과 농악꾼들이 행하는 풍물굿에서 연희된다.

◎ 자연순응의 심성

자연순응의 심성은 농악이나 탈춤, 그리고 허튼춤과 같은 민속춤에서 잘 나타난다. 즉, 인위적으로 꾸며서 추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추기 때문에 동작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기계적이고 규칙적인 춤이 아니라 장단과 장단 사이를 자유롭게 조절하면서 추는 춤이며 또한 직선적인 자세가 아니라 어정쩡한 자세로 추는 등 대부분의 춤이 자연스러운 점은 우리의 자연순응의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낙천성과 풍자적인 심성

가난한 농민들의 농악이나 허튼춤에서는 그들의 힘든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활의 고통을 신명으로 풀어버리는 낙천성과 풍자로 표현하는 여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탈춤과 병신춤에서는 양반의 추태, 비굴함과 허세 그리고 그들의 초라한 모습이나 바보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지 각색의 사람의 흉내를 내어가면서 익살과 해학으로 풍자적인 멋을 부린다고 할 수 있다.

자료 : 정병호, 1992.

참 고 문 헌

- 구희서 글, 정범태 사진(1992), 강선영－태평무；김덕명－양산사찰 학춤；김천
홍－춘앵전；안채봉－소고춤；유경성－왜장녀춤；이동안－신칼대신무；
이매방－승무；하보경－밀양북춤, 열화당.
- 국립민속박물관(1982), 한국의 탈, 통천문화사.
- 김경신, 배소심, 김준희 편역(1994), 무용창작학습－중학교, 고등학교 편, 금광.
- 김매자 글, 조대형 사진(1990), 한국의 춤, 대원사.
- 김수남 사진, 조동일 글(1988), 한국의 탈춤, 행림출판.
- 김영수 사진, 심이석 글(1993), 한국의 나무탈, 열화당.
- 문화부(1992), 한국의 민속예술－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
- 봉천놀이마당 엮음(1994), 민속교육자료집, 우리교육.
- 성경린(1992), 한국전통무용, 한국문화예술대계, 일지사.
- 송수남 (1988), 한국무용사, 금광.
- 유경희(1992), 한국무용의 춤사위에 대한 연구－민속무용용어를 중심으로, 경희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 옮김, 아리린 룩허드, 에스더 피스 지음(1992), 무용의 창작과정, 금광.
- 이명자(1994), 한국 전통 민속무용의 동작의 특성, 호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숙재 옮김, 알마 호킨스 지음(1994), 안으로부터의 움직임－새로운 무용 창작
의 방법－, 현대미학사.
- 이은주(1992), 살풀이춤, 은하출판사.
- 장사훈(1992), 한국 무용개론, 대광문화사.
- _____ (1993), 한국음악과 무용에 대한 연구, 세광음악출판사.
- 정병호(1985), 한국춤, 열화당.
- 조동일(1988),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 _____ (1992), 탈춤, 대원사.
- 정병호(1992), 한국의 민속춤, 삼성출판사.
- 채희완(1985), 공동체의 춤 신명의 춤, 한길사.
- 최승희(1991), 조선민족무용 기본, 동문선.

최청자 편저(1991), 안무와 움직임, 금광.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4), 문화예술 1월호~11월호.

허순선(1991), 한국의 전통 춤사위, 형설출판사.

